

금추일언 선과 악을 깊이 관찰하던 마음이 그 두려워하고 꺼려할 것을 알 것이니, 두려워하며 범하지 않으면 마침내 길(吉)하여 근심이 없다.
<법구경·명철품 250절>

東大新聞

발행처	행인	인쇄	송송이	석재	구문
경북경주시	주국	간영	이인	준인	선영
과년국·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60-3492) FAX(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770-2067)					

제 1172 호 <주간> 1964. 1. 1 등록번호 다-10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5년(불기2539년) 4월 12일 (수요일)

창간 45돌 1950-1995

祝 東大新聞創刊十五周年 李鍾燦

正名立論

창간기념 축하 위로

“명분을 바르게 하고 언론의 이론을 정당하게 세워라”

이 중 찬 (국문학)교수

◇창간 45주년 특집호에 부쳐 - 본사 초대주간 회고기

“신문을 창간한지 45년이 되고, 나는 명예교수가 되었다”

..... 명진판을 짓기 위해 더 땀을

1면에 실었다가, 인쇄된 신문은

몽땅 태우게 된 사건도 있었고...

일찍이 1954년 국어국문학과 강사로 모교의 강단에 서기 시작하자 사변전에 대학가에서 가장 먼저 발간했던 '동대월보(東大月報)'의 속간을 서둘렀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 줄라서 어렵사리 결비를 꼬집어냈다. 그것이 지금의 동대신문의 타브리트판 제3호다. 다음 제4호부터는 지면을 일신하여 고정판 '메아리'도, 학술논문도 실기 시작했다. 그런데 문제가 야기됐다. 곧 석조건물인 명진관을 짓기 위해 터를 댈기 위한 서너대의 불도저 소리가 동악을 진동하자 신문의 제1면을 장식하고자 나의 가슴은 설레었다. 즉시 현장을 취재하고 사진

사를 불러다가 사진을 찍어 전면을 화보로 메꾸기 위해 확대까지 해서 당시 신문인쇄를 맡기고 있는 서울신문사 공무원으로 달려가서 통사정을 해서 찍은 신문 등치를 택시에 싣고 최봉수 문리대학장께 봤더니, 1면의 사진판을 보시자 무조건 배부금지라시는 바람에 하도 부아가 치밀어 큰소리가 오갔다.

마침 김영석 서무처장께서 옆에 계시다가 지독한 호남 사투리로 비록 한장이라도 밖에 나가면 신고사 건설에 막대한 차질이 온다시며, 가뜩이나 매서운 눈매로 기겁을 하시면서 옆방의 대학원장 양주동선생께 협조를 호소하셨다. 그러자 자초지종을 알게 되어 속절없이 좌절해야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안쓰럽다.

위낙 정식하기도 나지 않은 판에 당시 총장 백성욱선생의 율력으로 당국의 묵인하에 공사를 벌였는데, 현장사진이 나가면 물적증거의 제공이 돼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데야 난들 고집만 부릴 수가 없어 안간힘을 씹히면서 모든 자료등치와 함께 신문 등치를 대학본부건물 지하의 보일러실로 갖고 가

서 책임지고 몽땅 소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소동으로 해서 나의 주간의 복은 달아났고, 아울러 그로 말미암아 무려 8년간의 강사생활을 감수해야 했다.

또 하나 있다. 54년 당시는 대학신문은 서울대학교와 우리 대학 뿐이었다. 그런데 서울대신문은 하마 14호를 내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고작 4호를 찍는 처지여서 심사가 무척 사나웠다. 그래서 나는 무작정 4호를 슬쩍 14호로 찍었다. 만일 거발이냐면 아예 미처 오식했다고 우길 판이었는데 아무도 지적이 없었고, 공보처에서도 그대로 넘어간 바람에 다음부터는 버젓이 15호로 매기며 시치미를 떼었다. 그러니까 동대신문의 보관지는 4호부터 13호까지는 찍지 않아 없을 수 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은 동대월보에서 비롯하여 동대신보로 간행하다가 월보라는 바람에 제호를 바꿀 수 없다는 당국의 억지여서 부득이 화성회의 호응을 받아 주간으로 발행할 신문지대의 정수로 경비가 마련되자 비로소 '동대신문'으로 고쳤다. 여기에는 편집국장 송혁(송재갑)선생의 수고가 많았다. 그래서 제호는 당시 서예의 대가인 손재형선생의 휘호를 받아 쓰다가 지금은 김용현선생의 휘호로 바꾸어 쓰고 있다.

이 병 주
(본교 명예교수)

읽을거리

7 동대신문 45년 발차취
지면중심으로 격동의 80년대와 변화와 모색의 90년대를 재조명해 본다.

8-9 특별좌담 - '21세기 한국대학교육의 선택'

경쟁과 협력 시대인 21세기를 맞아 대학마다 독자적인 대학모형을 개발해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0 나의 동대신문사 기자 시절
고뇌와 시련...대학신문 기자로서 겪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의 시대적 아픔을 들어본다.

11 기획 설문 조사
독자들이 바라보는 동대신문과 학내 상황에 대해 알아 본다.

16 '말미잘' 유현목 감독을 만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한 유현목 감독을 통해 그의 14년만의 작품인 '말미잘'을 지면으로 감상한다.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은 캠퍼스 차없는 날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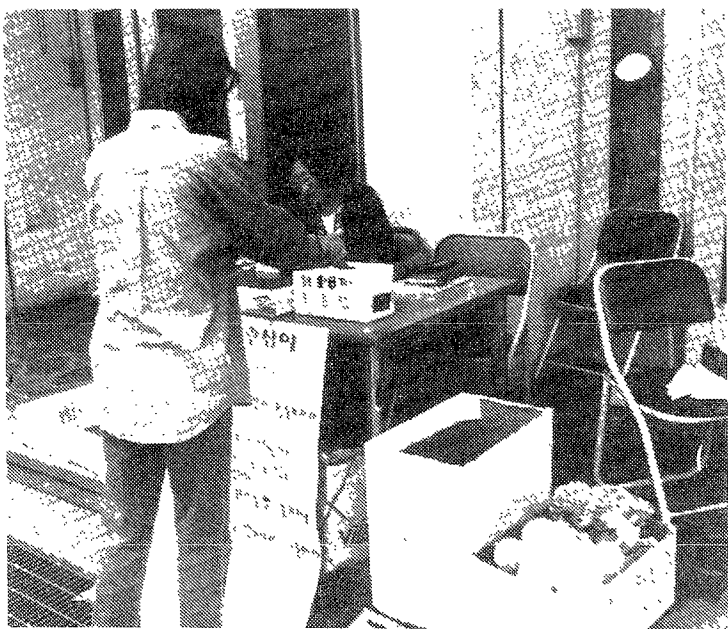
창간 45돌 1950-1995

“60억짜리 자가용 타고 오세요”

“걸는 것도 좋아요”

실시일자: 매일 마지막주 금요일
4월28일 시행
7·8·12·1·2월은 시행하지 않음
예외차량: 학내방문차량
(배달차량, 은행·우체국 공무원차량)
장애자 차량
외부강사 차량

동대신문사



◇ 사랑을 담아주세요... 사화대, 법대, 21세기진보 학생 연합, 사법대 시사연 구회에서 주최하는 금호 1-6지구 철거민을 위한 모금이 지난 3일부터 진행중이다. 사진은 본관 앞 모금장소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 모습. (박대용 기자)

불교대학원 3천8백만원 모금 원장 취임법회서 마련

불교대학원(원장=목정배·불교학)은 지난 7일 암버서더호텔에서 제4대 원장 취임법회를 갖고 학교발전기금 모금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불교대학원 설립이후 처음 행해졌으며 △권수자(도경)=5백60만원 △김희일(형민)=5백만원 △김영(총학생회장)=3백만원 △문장식=6백만원 △효범스님=60만원의 기부와 무주상보시 3백3십만원을 합해 총 3천8백15만원이 모아졌다.

이는 1백주년 건립기념 '학술문화관 건립 기금'으로 납부됐고 불교대학원장은 "동국대 학교는 스님들이 돈을 모아 세웠고 동국을 발전시키려 많은 돈이 필요하고 동국발전이 곧 불교발전이다"라고 모금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대학발전을 위해서 내자신이 걸레가 되도 좋다"라고 불교발전을 향한 의지를 보였다.

직원노조 3차 단체교섭

'95년도 3차 직원노조 단체교섭이 지난 6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열렸다.

3차단체교섭은 2차 단체교섭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진행됐으나 노조측에서 제시한 인들에 대해 학교측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혀 별다른 진전없이 끝났다.

다음 4차 교섭은 내일(13일) 경주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서충련 출범식

13일 한양대 노천강당

서충련 출범식이 오는 13일 한양대학교 노천강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각 학교별로 학내 출범식을 가진 후 지역 선전전을 수행하며 한양대로 집결하는 이번 출범식은 △기간 각 단위 학생회의 활동을 총화하고 향후 전망과 활동을 힘있게 공유 및 결의 △출범식 창조적인 학생중심의 기획으로 의장 추대 등의 다양한 형식을 통해 서충련으로의 단결과 총노선에 대한 이해를 대중적으로 승화 △95년의 총력을 통일구국투쟁으로 몰아낼 것을 당차게 결의 △민주총선전선등 민중연대투쟁에 대해 목적의식적으로 일임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출범식의 구체적인 일정을 살펴보면

면 각 단위의 문예창작들을 함께 공유할 문예한마당과 출범식 본마당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본마당에는 분단된 조국의 현대사를 뒤돌아 보며 95년의 과제를 힘차게 공유하고 결의를 높이는 자리, 학원 자주화투쟁을 모범단위 중심으로 총화, 학원자주화투쟁의 과제와 방향을 합의, 결의해 민족화해 선포대의 구체적인 상을 제시, 더 나아가 95년 지자제 승리의 의지를 모아내는 자리, 의장을 대중적으로 응징하는 자리 등이 준비되어 있다.

또 출범식장을 장식할 선전마당으로 학자거리, 통일거리, 우리역사 바로 알기, 각 학교별 선전마당, 연대거리 등이 있을 예정이다.

등록금 협상 결렬 논의구조 정착에서 이견

지난 7일 오후 5시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있었던 제8차 등록금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7차 협상때 총학생회측이 요구한 △지정인건비의 재단부담 △건설가계중증 인상분 재단부담 △경주등록금 2%인상 철회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구조 정착 등에 대한 학교측의 답변이 있었다.

먼저 학교측은 등록금에 관한 총학생회의 요구에 관해 "병원 건립에 투자되는 돈을 살펴보면 재단이 20억, 병원이 10억, 기부금 14억 등 총 44억원이 투자되고 있다"며 학

생들의 납입금은 모두 교육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논의구조 정착에 관해서 학생처장은 "학생들은 공부에 열심하는 것이 학교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라며 "앞으로 학생처를 통해서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총학생회측은 "방중이나 지금이나 학교측의 모습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고 "더 이상의 논의의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건설가계중 부분에서 재단부담의 지속적 증가 △분당방병원 건설 비용의 재원확보 방안 중대 △실질실습

비 5%제정 공식화 △지정인건비 재단부담 △학사행정 전반과 동국발전에 대한 논의의 틀 확보 △학사행정의 공개성과 학생참여의 틀 보장 △신설학과문제 해결등의 최종 요구안을 학교측에 전달, 오는 17일까지 답변을 요구하며 협상자리를 정리했다.

총학생회는 "오는 17일까지 답변이 없을 시엔 학생들의 근본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간주, 이후 대응에 대한 책임은 모두 학교측에 있다"라고 밝혀 17일까지 답변이 없을때는 학교측과 학생측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주년사업본부, 사업계획 마련

기금조성·교외협력체계 구축 추진

개교 1백주년 기념사업본부(본부장=한보광·선학)는 지난 10일 열린 교무위원회의에 사업추진기본계획안을 제출했다.

이 계획안은 동국발전 기금조성과 교외 협력체계의 구축을 사업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방향은 기금조성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토대구축과 범동국인 참여의식 고취로 설정했다.

사업본부 운영의 기본방침은 △사업 목표의 단순화 △사업추진의 분명화 △전 동국인의 참여와 △관리체계의 일원화이고 모금 대상별 역점사업으로 '동문등록금 한번 더

내기 운동' 등이 계획됐다.

또한 교무위원, 각 대학 학생처, 교무처, 총무처, 관리처, 각 대학원의 학내 협력체계구축이 결정됐다.

'캠퍼스 차 없는 날' 오는 28일 첫 시행

학생처(처장=곽준규·교육학)는 학내 면학 분위기 쇄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 중의 일환으로 '캠퍼스 차 없는 날'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하계 방학기간인 7, 8월과 임시기간인 12, 1, 2월을 제외한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28일 첫 실시된다.

학내 방문 차량, 장재차 차량, 외부강사 차량, 영업용 차량 등은 예외차량으로 시행 당일 정문에서 코끼리상자까지 주차시키고 초과시엔 정문에서 박물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학내 방문 차량중 우체국, 은행의 공무 차량과 배달 차량은 학내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발족

총동서 설립...재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총동창회(회장=황명수·정치외교53졸)는 총동창회장 황명수, 상임부회장 유주영, 상근부회장 박익주와 동창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재단법인 동우장학회 현관식을 지난 11일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가졌다.

재단법인 동우장학회는 총동창회가 장학금의 단순화 △사업추진의 분명화 △전 동국인의 참여와 △관리체계의 일원화이고 모금 대상별 역점사업으로 '동문등록금 한번 더

이를 기반으로 장학금 확충사업을 벌이게 된다.

'턱날한'고승 초청법회

정각연(원장=이법산·선학)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정각원에서 턱날한 스님을 초청하여 고승법회를 실시한다.

턱날한 스님은 베트남 출신으로 베트남출신 발발후 '사회봉사'를 위한 청년학교와 '반한 불교대학' 및 '절현종'을 창시하여 전장에 활자인 베트남의 재거 및 평화운동에 힘썼다.

특히 이념대립과 민부의 갈등을 초월해 내적인 각성과 자비로 평화를 실현하려는 턱날한스님의 의지는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틴 루터 킹에 의해 1967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대되기도 했다.

신경림씨 초빙 강연회

교육대학원(원장=조영록·사학)은 시인 신경림씨를 초빙해 '광복50주년, 한국문학의 발전'이란 주제로 내일(13일) 오후 8시 동국관(L406)에서 강연회를 개최한다.

보 리 수

폭력과 명성

핵주먹의 사나이 타이슨이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세계 복싱계에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삼년동안 교도소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의 몸이 된 타이슨은 다시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명성을 회복하고 있다.

그의 명성의 비결은 다른데 있지 않다. 주먹으로 세계를 제패하고 명성과 부를 얻어 스타가 된 것이다. 스타는 범죄 행위를 해도 세상의 화제가 된다. 유명세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사법당국도 대중스타에게는 매우 관용적이다.

타이슨도 마찬가지다. 그가 교도소를 간 것은 폭력때문이었다. 폭력의 죄질에 비해 그는 빨리 출소했다. 주먹으로 얻은 명성 때문이었다. 주먹은 사각의 링속에서 휘둘러졌을 때 돈과 명성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주먹이 강하더라도 사각의 링을 떠나 휘두르게 되면 그것은 폭력이 되고 만다. 타이슨은 자신의 핵주먹을 과시하여 폭력을 자랑한 죄로 교도소에 갔다가 출감하였다. 주먹으로 사람을 때린 일은 이처럼 틀에 따라 범죄가 되고 돈과 명성을 얻는 일도 그 명암이 달라진다. 인간의 취미가운데 가장 원시적이고 비인간적 취미가 있다면 권투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사람 때리는 일을 즐겨워한다. 통쾌한 흥분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주먹으로 때리는 일을 아무리 미화시켜도 그 내용은 사람을 때리는 일이 주먹이다. 인간은 잔인한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동물적 야성(野性)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이다. 얼마전 모래시계가 방영될 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진 부분도 폭력장면이었다. 폭력을 미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반면 폭력세계를 그리워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폭력은 이처럼 인간의 동물적 야성(野性)을 자극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국신선들도 수행자에게 폭력을 자행한 일이었다. 그 대표적 선사(仙師)가 '황벽'이다. 황벽선사는 난독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훗날 제자가 된 임제선사가 불법의 근본 뜻을 물었을 때 황벽선사는 임제를 몽둥이로 후려 갈았다. 그러나 임제는 분노나 원망을 하지 않았다. 황벽선사 역시 임제선사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었다. 몽둥이를 맞는 일이 고통스러웠지만 한편으로 즐거웠다.

그래서 황벽의 폭력은 단순한 폭력에 머무르지 않고 깨침을 열어주는 붓(棒)의 범주가 되었다. 그러나 폭력은 이땅에서 추방되어야 한다. 개인이나 국가를 물들 것 없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워야 한다. 폭력이란 남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일만이 아니다. 분노와 증오, 거친 말도 일종의 폭력이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워 불의의 폭력이 정의를 짓밟는 경우가 있다.

'간다'의 말처럼 폭력은 약자의 무기이지만 비폭력은 참는 자의 무기이다.

김 정 휴
불교신문사 사장

교무위원 합동연수 교육

학교발전방안·교육환경개선 분임토의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교무위원 전원 및 각 병원장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문화관에서 합동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연수중에는 학교발전방안과 교육환경개선을 주제로 분임토의가 이루어졌으며 21세기를 향한 대학 개혁의 방향에 대한 특강등이 있었다.

행정처리 자료집 배포

총무처(처장=염준근·통계학)는 '중앙행정부서 업무 및 처리기간'을 엮은 자료집을 다음주 각 과별로 배포한다.

이 자료집은 송석구총장의 민원과 행정처리에 대한 지침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복잡한 민원업무를 개선하여 일 처리를 신속히 하

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료집에는 학사행정처리 부서와 업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한 예로 학적과 업무 처리 기간을 살펴보면 성적처리는 △공시 3일 △입력 1일 △대조작성 2일 △발송 1일로 자세히 정리되어 있다.

김종진 총무과장은 "서비스를 철저 해 민원업무를 개선하고 행정색인으로 학교와 학생이 힘모아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알 림

중간고사 관계로 인해 제1173호는 5월3일자로 발행됩니다.



역사를 발전시켜 온 것은
함릿형의 고뇌가 아니라
돈키호테형의 실천력이다.
루르케네트(1818~1883)



어디 있는가? 이 시대의 돈키호테들은...

제3의 개혁을 추구하고있는 한화그룹과 함께
세계로 도약할 진취적인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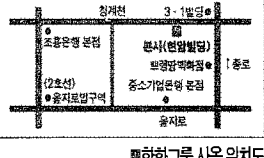
■ 화악/무역/경보통신 (주)·한화·한화전자정보통신(주) ■ 화화/에너지·한화에너지(주)·한화종합화학(주)·한화비스프로우에탄(주)·한화포리마(주)·한화소재(주) ■ 기계·한화기계(주)·한화지동차부품(주)·한화엔스케이징(주)·한화정공(주) ■ 금융·제일증권(주) (주)제일경제연구소·제일투자자문(주)·삼화투자자문(주) ■ 유동/역사 (주)한양유동·한화역사(주)·태광개발(주)(서울프리카호텔)·한국국토개발(주) ■ 사회복지·천안북일학원 (주)한화이글스 ■ 언론·(주)강원신문사 ■ R & D·그림종합연구소

신입사원 모집요강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	집	분	인원
경영, 행정, 중국어, 영어, 컴퓨터, 인문 기타			400명
회계, 기계, 전자, 전기, 산업공학, 토목, 건축, 농수산, 식품, 섬유, 도시계획, 수목, 임업기타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나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응시자격			
가 모집대상학과 전공으로서 학사,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1995년 8월 취득예정자 나 군복 또는 군면제자 다 1967. 1. 이후 출생자 (석사 및 장기복무전역 예정장교의 경우 1965. 1. 이후출생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로고인장) 1통 나 대학 전학전 이력서 1통 (석사학위인상은 대학원 성적증명서 포함) 다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보호대상자에 한함) 1통			
5. 원서교부 및 접수처			
가 기간 1995. 4. 11(화)~4. 18(화) 09:30~17:00 (토요일은 12:00까지, 일요일은 제외) 나 접수처 ■그림그룹 및 접수처·전화·그림사육 서울시 중구 경교로 1번지 한일빌딩 28층 접수처(성남성 운영) *안내전화 729-1124, 1125, 1083, 4300 ■지방교부처(교부처에 한함)			
6. 기타			
가 입사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여 서류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 합격(입사)을 취소함 나 우편접수는 접수기간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국가보호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하며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그룹 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열/회사별 모집분야			
모집계열	모 집 학 사	모 집 학 과	비 고
화 악 무 역 경보통신	(주)한화, 한화전자정보통신(주)	경영, 행정, 회계(학), 기계, 전자, 전기, 산업공학, 토목, 중국어	무역부문지원자는 전공공통문 전지/전신부문 8월 석사학위취득예정자는 병역특례가능
화 화 에 너 지	한화에너지(주), 한화종합화학(주), 한화비스프로우에탄(주), 한화포리마(주), 한화소재(주), 그룹 종합연구소	경영, 행정, 회계, 기계, 전기	종합연구소는 석사지원가능/8월 학위 취득예정자는 병역특례가능(특정)
기 계	한화기계(주), 한화지동차부품(주), 한화엔스케이징(주), 한화정공(주)	경영, 기계	전주, 창원지역 근무가능자 우대
금 융	제일증권(주), (주)제일경제연구소, 제일투자자문(주), 삼화투자자문(주)	경영, 행정, 인문, 이문, 전기, 수목, M&A 및 경제, 경영, 통계학 석사	석사학위인상은 어학가능자 우대
유 통 제 지	(주)한양유동, 한화역사(주), 태광개발(주)(서울프리카호텔), 한국국토개발(주)	경영, 행정, 영어, 불어, 기계, 전기, 전자, 건축, 토목, 농/축/수산, 식품, 섬유, 환경 도시/환경	영양부문은 전공공통문 지원가능자 우대
기 타	(주)한화이글스	전산	대전근무가능자

한화그룹 인력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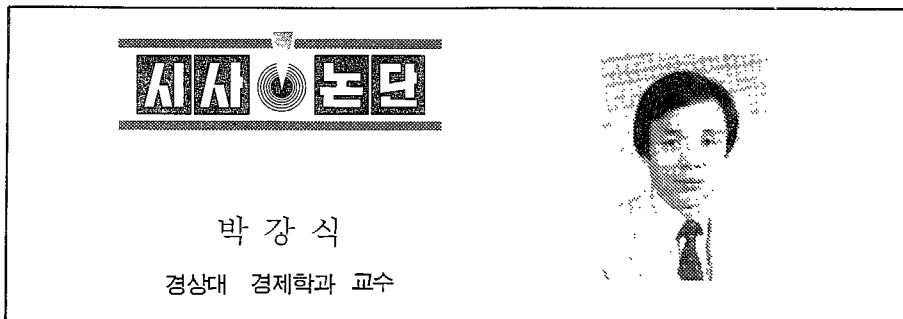
국제금융시장 동요 배경과 대응방향

환율 불안정... 금융기관 혁신 시급

금년 3월에 접어들면서부터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을 대변하는 달러화와 엔화 및 마르크화 간의 환율(¥/\$, DM/\$)이 급락, 즉 달러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엔/달러는 3월말 1달러당 86.6엔에 달하여 한달전 대비 11.7%하락하였고 4월8일에는 83엔대에 진입하였으며 마르크/달러는 3월말 1달러당 1.373마르크로서 한달동안 6.3%나 내려갔다. 마르크화는 4월6~8일간 달러당 1.38마르크 선에서 옆집을 돌고 있으나 엔화는 1불당 80엔선 돌파도 점쳐지고 있다. 엔/달러의 구매력평가환율(명목환율X 미일 양국의 물가상승률비율)은 달러당 1백10엔임을 감안하면 '수퍼 엔고 시대 진입'으로 평가되고 있어 자본시장을 서둘러 개방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몇가지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두나라 통화간의 환율은 이론적으로 두 나라간의 물가상승률, 소득과 경상수지, 통화량증가를 및 이자율 등의 차이와 각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정도 등이 두 통화에 대한 수급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오르고 내린다. 특히 이들 경제변수들에 대한 충격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그 여파를 예상하고 행동하는데다 통신후보가 발달하여 그 효과는 초를 닮아 환율에 반영된다.

최근의 달러화 가치 폭락(엔화 가치의 폭등)은 달러화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장단기 기본요인들의 변동에 기인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무역수지흑자가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90년 통독 이후 92년까지는 자금수요증상으로 이자율이 미국의 금리를 상회하였고 앞으로도 물가상승압력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르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미국은 94년도에 3.9%의 고율성장을 기록, 물가상승압력도 높아진데다 재정적자도 크게늘어 무역수지적자가 93년 1천3백26억 달러에서 94년엔 1천5백



박 강 식

경향대 경제학과 교수

57억달러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본은 91년 이후 경기침체로 총수입 특히 데미수입이 감소한 반면 수출이 증가하여 무역수지흑자가 상기 기간동안 1천4백16억달러에서 1천4백58억달러로 늘어났다. 세계무역의 2/3 이상이 달러로 결제된 점으로 미루어 적어도 '미국무역적자'(일본의 무역흑자-일본의 데미무역흑자)X 2/3만큼 달러의 초과공급이 상존하고 있고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95년 3월 들어서는 달러화공급조와 현상을 악화시키는 경제적 사건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미국정부는 균형예산을 위한 헌법 개정에 실패했고 94년말부터 촉발된 멕시코 경제의 붕괴는 달러화의 초과공급을 부채질 하였다. 일본에서는 95년 1월의 데지진으로 막대한 엔화자금이 필요함에도 3월 결산법인들이 달러화자산을 대거 처분하였다. 특히 95년 2월 영국의 '베어링은행'의 경우 무역수지흑자가 30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90년 통독 이후 92년까지는 자금수요증상으로 이자율이 미국의 금리를 상회하였고 앞으로도 물가상승압력 때문에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로 마르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미국은 94년도에 3.9%의 고율성장을 기록, 물가상승압력도 높아진데다 재정적자도 크게늘어 무역수지적자가 93년 1천3백26억 달러에서 94년엔 1천5백

4월들어서도 달러화 가치의 폭락이 계속되자 독일의 '분데스뱅크'가 재할인율을 0.5%인하하였고 4월 6~7일 미국 연방은행과 동맹은행이 10~20억달러 정도를 매입하였

으나 중앙은행들의 시장개입능력에 대한 한계성만을 드러냈을 뿐, 달러하락을 반전시키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이번에는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 중앙은행들까지도 엔화 매입에 나서으로써 달러저(엔고)를 부추기게 되었다.

앞으로도 미 일 독 3개국을 국별로 이해가 달라 국제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독일은 임금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과 실업해소를 위해 고금리 유지가 불가피하다. 미국은 4월6일 하원에서 '감세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4~5년내에는 재정적자의 해소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특히 94년중 7차례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여 앞으로는 이를 인하해야 할 임장이며 달러화약세가 물가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미국정부는 달러하락을 무역수지적자해소의 기회로 삼고 있다. 다만 일본은 엔고로 수출산업에 타격이 커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지만 일본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재할인율은 이미 1.75%로 '최저수준'에 있어 더 이상의 인하가 어렵고, 일본국민의 일본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높은 저축성향으로 인하여 수입 개방이나 내수진작정책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금융시장에서 추축통화들의 환율이 급변하였음에도 원/달러환율은 3월한달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와 외국자금의 유출(약 67억달러) 등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율안정'의지로 인하여 오히려 1.9%하락(원화의 절상)하였고 원/엔화의 환율은 6.1상승(원화의 절하)에 그쳤다.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그만큼 굳게 닫혀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R이행계획서'에 자본시장개방을 약속하고 그것을 이행중에 있는데 OECD에 가입될 경우 개방은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그때에는 최근과 같은 정도의 주요통화들의 환율변화는 현재보다 훨씬 큰 폭으로 그리고 신속히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국제통화체제가 현재의 달러중심에서 달러-엔-마르크 3두체제로 개편됨으로써 주요 통화들간의 환율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게 됨으로 우리정부는 지급처럼 환율을 쉽게 조정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국제투자자들의 투기의 대상이되어 하루아침에 유린당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게 될 것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율변화와 관련된 거시변수들의 안정화 및 국제수준화가 시급하다. 국제무역은 과다소비→무역적자누중→달러화 가치폭락을 자초한 미국과, 지나치게 높은 저축성향과 폐쇄적인 시장→엔고→경기침체의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물가의 안정은 필수적인 것이고 금리는 국제금리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독립하여 일관성 있는 통화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창구는 '3대내수 산업의 하나인 금융기관'들이다. 금융기관들은 우선 국내에서의 자금의 조달과 운영면에서의 혁신은 물론 고도로 발달한 선진거래 등 국제금융기법을 서둘러 익힘으로써 국제금융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길러나가야 할 것이다.

사설

창간 45주년의 새로운 각오

4월15일은 본지가 창간된지 만 45주년을 맞는 날이다. 그리고 이날로 본지는 지령 1천1백72호를 기록한다.

해방후의 한국대학사에서 이만한 연륜과 지평을 가진 대학신문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반세기의 역사를 눈앞에 두고 회고해 보면 뿌듯한 자긍심이 솟아 나지 않을 수 없다.

1950년 6.25의 비극을 불과 한달여 앞두고 본지는 진리와 자유, 학문과 지성의 드높은 가치를 들고 첫호를 발행하였다. 그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대신문은 도전과 응전, 고난과 시련의 한국현대사를 체험해 오면서 대학이 서야할 역사적 중심을 잃지 않도록 정명일론(正名立論)의 자세를 굳건히 지켜 왔다.

대학인의 정의를 사회로 확산시키는데 앞장섰는가 하면, 독재와 불의엔 날카로운 필명으로 저항해 왔다. 동대신문의 이러한 비판정신은 파사현정의 불교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으로서 동대가 언제나 사회정의의 편에 서서 학문과 지성을 닦을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을 이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처럼 동대신문은 시대와 더불어 고난을 함께하면서도 안으로는 뜨거운 정열로 학풍의 조성과 대학문화의 창달에 혼신의 힘을 다하였다.

동국사(東國史)를 낱말로 기록한다는 점에서 학내보도의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힘을 기울였으며, 교수, 학생, 직원, 동문들의 '열린광장'이 되도록 학술, 문화, 교육의 차원에서 지면을 확대하는데 결코 인색하지 않았다. 동대신문이 오늘날 3만여 고정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도 지면 구성의 이러한 특징 때문이 아닌가 자부해 본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창간 45주년의 의미가 이러한 자부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안다. 동대신문도 한 때는 '학생독재'라는 혹독한 비판을 면치 못했으며 문제를 다루는 시기이나 편집방향이 공정하지 못하고 지극히 편향적이라는 지적을 수없이 받은 경험이 있다. 근래의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한 시대적 상황의 반영이었음을 독자들에게 고백하면서, 대학신문은 '대학신문' 다워야 한다는 자성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결의다.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대학도 이제는 '질 좋은 상품'의 배출을 이 사회에서 요구받고 있다. 교육자체가 상품화되어가고 있는 오늘날의 변화 속에서 대학이 살아 남으려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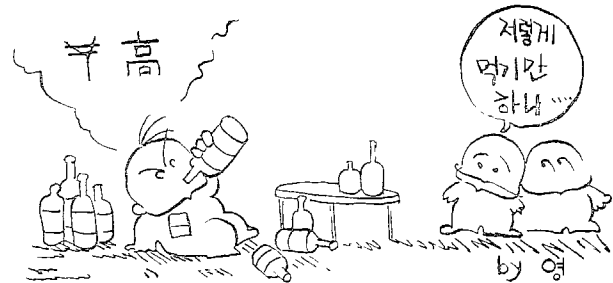
그러기 때문에 학문상의 구조조정은 물론 시설의 확충, 질 높은 교육은 필수적이다.

동대신문은 동대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풀어 가는데 학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면학풍토의 조성은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대학인다운 자질과 품성을 갖도록 하는데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도 다짐한다.

통국판 평

이영일



by 영

◇직원노조 단체교섭 어디까지 왔다

‘직원 외국어교육비 지원’만 합의

학교측 준비부족으로 뚜렷한 결과없어

'95년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1백주년사업본부)임금 및 단체교섭이 3차례 진행됐으나 학교·노조 양측의 기본입장만 제시될 뿐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노조에서는 이번 단체교섭의 주요내용으로 임금협정부문에선 △기본급 인상 △각종 수당 조정을, 단체협약부분에선 △명예퇴직 수당 지급 기준 변경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 △직원 외국어교육 후환등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이에 학교측은 3차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직원 외국어 교육비 일

부를 학기당 지원하는 것을 약속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정점 없는 협상

지난 24일 열린 2차 단체교섭에선 임금 인상이 노조12%, 학교5%(내년15%)로 제시됐고, 예·결산을 학교가 공개하기로 하되, 협약사항에서는 공개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그 외 단체협약(안)으로 명예퇴직 제도,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 등이 논의됐으나 학교측의 준

비미비로 기본입장만 공유됐다.

각종 수당 조정 및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 등에 대해 학교측은 "검토중이다. 심도있게 연구하고 있으니 다음 교섭에서 연구하자"며 2차교섭때 논의된 대부분의 사안을 3차교섭으로 미루었다.

그러나 3차교섭 역시 눈에 띄는 잠정사안 없이 매듭을 지었다.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

이번 단체교섭의 난점사안으로 제기된 내용이 꼽힌다.

첫째, 임금 인상률부분을 거론할 수 있다. 올해 임금인상률로 노조에서는 12%를 제시하였고, 학교측은 대학종합평가와 임금 예산이 결정되어 수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올해 5%, 내년 15%로 하여 평균 10% 인상(안)을 밝혔다. 이에 노조측은 임금수준과 대학수준은 비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내년도 인상부분을 논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사항임을 지적했다.

둘째, 각종수당 조정부분이다. 적용기준이 모호한 채로 관행에 의해 지급된 수당에 대해 노조는 명분이 정확한 수당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기근속수당 조정과 효도수당 신설이 학교측의 적극 검토를 약속받았지만, 그 외 책임수당이나 특수근무수당, 자녀교육수당 등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시하기로 학교측이 밝혀 계속적인 '연구, 검토'과제로 남겨졌다.

셋째,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안)이다. 크게 일반직, 기술직, 기능직으로 분류된 본교 직종중에서 기능직에 포함된 사무기능직은 담당업무, 자격, 학력에 관계없이 전원 여성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개선에 대한 꾸준한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이에 그동안 학교 당국과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여러 차례 논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 없이 5년여 동안 유보되어 왔으며 노동조합 내부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문제로 남아있었다.

사무기능직 인사제도 문제는 합리적인 인사제도 개선방안이 마련되어 새롭고 발전적인 인사정책이 수립될 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며

4차 단체교섭은 오늘(12일) 경주 캠퍼스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에서 이미 제시된(안)에 관해 학교측의 연구, 검토된 자료제시로 서로의 '의견차이'를 만들어서 좁혀 나가길 바란다. (곽주영 기자)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十人十色

개성이 숨쉬는 열린 일터 - 삼성입니다.

캠퍼스의 봄에는 개성의 꽃이 피어납니다. 칸트를 꿈꾸며 인생과 학문의 본질에 대해 사색하는 학우도 있고, 스윙비트를 뛰어넘기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학우도 있습니다. 또, 히포크라테스의 후예답게 仁術을 펼치며 봉사활동을 하는 학우도 있지요. 학창시절을 공부에만 매달려 있기에 아깝다고 생각하는 학우도 있고 그 반대인 학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젊음은 저 마다의 개성이 피어나는 시간이니깐요. 삼성은 젊음의 개성을 존중합니다. 확실히이지 않고 자유로운 개성,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갈 자신감 있는 젊음 - 삼성이 만나고 싶은 젊음의 모습입니다.

삼성엔 개성이 살아있는 젊음, 유연하고 입체적인 사고로 자신의 꿈을 실현해나갈 적극적인 젊음과 만나고 싶습니다.

SAMSUNG

삼성



◇‘김대중 죽이기’로 본 지식인 집단·지역감정 그리고 언론

양비론·황색저널리즘의 언론 냉철히 비판
보신주의·기회주의로 일관한 지식인 치부 드러내
지역감정... 권력기반 ‘장기집권등 정치권 부산물’

소리로 강하게 ‘아니다’라고 고개를 젓고 있다.

우리 사회의 지식인의 범주는 크게 대학교수, 언론인 등을 들고 있다. 우리 현대사에 있어 지식인이라 분류되는 대학교수나 언론인들은 기회주의, 보신주의, 소영웅주의로 굴절을 하면서 질곡을 거듭해 왔다.

저자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지식인 집단의 병폐에 단호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그러한 첫걸음으로 지식인 집단의 치부를 까발리는 일부터 해야한다는 것이다.

지식인과 한국정치의 부산물인 지역감정
한국사회에서 지역감정이라는 악령이 출현한 것은 61년에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취약한 권력의 기반을 다지고 장기집권을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지역감정이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은 71년 대통령선거에서 ‘경상도 대통령론’을 내세우면서부터이다.

한국의 지식인 집단은 한국사회의 발전의 전근대적 요소인 동시에 최대장애물인 ‘지역감정’을 타파하고 극복하려는 노력보다는 정치권력의 ‘알잡이 노릇’이나 ‘나팔수 노릇’을 하면서 지역감정을 즐긴 집단이다.

저자는 무당이 구천을 때도는 죽은 잡귀를 굿마당에 불러내어 잘잘못을 따져 시시비비를 가리듯이, 지식인들을 공론의 장으로 불러내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을 호도하고 편향된 논조로, 노란색 안경을 쓰고서 하얀세상을 노란세상이라고 강변하던 지식인들의 치부를 주저할 없이 비판하고 있다.

저자의 ‘김대중 죽이기’는 한국의 지식인 사회에서 사라져가는 ‘비판정신’을 재생시켰다고 평가하면 너무 자의적 평가일까? 아니다. 저자는 우리의 잃어가는 잃어버린 ‘비판의 신화(legend of criticism)’라

는 한편의 전설을 채록·복원시킨 구전문학자나 민속학자이다.

한국의 언론의 사도들은 물러가라. 정론의 탈을 쓴 황색 저널리즘 그리고 양비론

언론은 한 사회의 공자(公堂)이며, 몇몇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는 몇몇사람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언론의 사명은 정론(正論)을 생명으로 한다. 하지만, 한국의 언론사들은 공론과 정론은 한강물에 띄어 보내버리고 사실과 진실을 가장한 거짓된 사언(私言)이나 허언(虛言)들로 국민을 호도하고 우롱하고 있다. 또한, 양비론이라는 기회주의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면서도 황색저널리즘으로 일관하는 ‘김대중 죽이기’에서 저자가 말하는 대표적인 황색저널리즘으로는 조선일보를 들고 있다. 재벌 언론사들의 탄생부터가 비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견재하고 있는 것은 정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정도(正道)라는 분침을 하고 있지만 그 정체(正體)를 바로 보지 못하고 속고 있는 독자와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렇게 속물만 살라는가?

토론회의 황색화 - 한국지식인 사회의 영원한 숙제 강준만교수의 ‘김대중 죽이기’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저자의 ‘김대중 죽이기’는 시종일관 한국의 지식인 집단이 양비론의 허울을 벗어 던져 버리고 정론의 길을 가라며, 벼랑에 서있는 한국지식인 사회를 구하려는 절박한 외침인 동시에 처절한 몸부림이다. 또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지역감정’이라는 악령을 공론의 장에 끌어내어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으로 우리 지식인집단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지역감정의 골대를 극복하고 한국의 정치문화, 언론, 지식인 문화를 한차원 높이려는 저자의 몸부림이기도 하다.

한국의 지식인 집단에는 진정한 토론이 없고, 메아리가 없다.



‘김대중 죽이기’저자 강준만 교수

대화와 토론보다는 일방적인 자기주장만이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와 다르게 들리는 주장을 하면 색안경을 끼고서 토론과 대화를 뒤로한 채, 그 이단적 주장자를 죽이려 들기까지 한다. 외침에 메아리가 없다. 설령, 메아리가 있다할지라도 그 메아리는 가성(假聲)의 메아리일 뿐이다.

저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지식인 집단의 일부에서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비판보다는 웅얼한 자기변명의 논리로 그들이 그동안 행한 굴절된 행보와 행태를 합리화하고 있다. 이는 지식인의 참다운 자세가 아니다. 실명이 거명된 지식인들은 저자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다시는 편향되고 일그러진 글을 쓰지 않겠노라 고하는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역설적이지만, 그동안 지식인들이 양심적인 정론의 길을 걸어왔다면 강준만이라는 언론학 스타(?)가 탄생할 리 없으며, ‘김대중 죽이기’이라는 책도 출판될 리 없으며, 강준만이라는 사내에 의해 지식인 집단이 ‘수술대’위의 해부대상이 될리도 없었다. 이는 한국사회의 비극이다. 그 비극은 비극을 초래한 지식인 집단이 극복할 수 밖에 없음을 또한 저자는 강조한다. 저자의 ‘김대중 죽이기’는 지식인 집단과 언론을 두 축으로하여 지역감정과 양비론의 병폐, 정치현상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있다.

강준만교수의 ‘김대중 죽이기’라는 책을 ‘현대사에서 보기 드문 정치학 교과서이며 민족화합의 지침서’라고 평가하는 양심적인 언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아직도, 우리에게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철 호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동악로

유리장벽

‘지금 동국의 일만 학우는 어디에...’

경주캠퍼스 원효관 중정은 학우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쟁쟁한 마이크 소리로 가득 채워졌지만 등투전 진대회를 하기에는 빈자리가 많다.

‘일만학우 단결하자’는 플래카드 밑에 모인 인원이 이것뿐이니 참 쓸쓸하네”

대회장으로 들어오는 한 학우가 왜소한 규모에 한마디 던진다.

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소수의 진행원만이 주체가 돼 썰렁한 원효관 중정에 비해 건물안 휴게실은 강의를 마친 학우들이 북적대는 바쁜 모습을 이 보인다.

같은날 시청각실은 경주캠퍼스 총대위원회 출범식이 끝나고 예정된 정기총회가 대의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도전하는 제12대 총대위원회란 문구를 배경으로 “대의원 여러분은 학생들의 대표입니다. 여러분의 확실한 참여 기반위에 총대의원회가 설수있습니다”며 의장은 한해 사업의 각오를 밝힌다.

하지만 학생들의 대표인 대의원들만

저 참여부족으로 총회가 이루어지지 못

한데 아쉬움이 남는 모양이다. 한창 각 단대들은 체육대회 준비로 바쁘다.

많은 학우들의 적극적 참여와 호응이 필요하고 그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리

로서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한 학우는

“우리들의 호응과 참

여없는 체육대회는 그 취지부터가 체육대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겐다!”라고 말한다.

지금 많은 학생회와 여러기구들의 사업이 진행된다.

“당장 등록금 다녔다고 끝인가요. 장기적 안목으로 지속적인 투쟁이 중요하겠죠”라는 학우들의 자각의 목소리도 들리고 “더욱더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방향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학생회의 각오도 들린다.

원효관 건물안에서 굳게 닫힌 유리창을 통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등투대회장의 몸짓을 바라보는 한 학우. 그와 대회장 사이의 유리장벽은 깨질 것인가. (신영섭 기자)

사학단신

영석고 특별감사 결과 발표
서명교사, 반발...성명서 배포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11일 접수한 영석고 재직교사 28명의 진정서로 인해 진행했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일 발표된 감사결과에 따르면 △'95년1월 교직원 32명에 대한 호봉승급 및 급여인상분 2백93만5천8백원을 인출, 수령자의 수령인을 받은후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지난 2월15일 졸업식장에서 서울 시흥중 소재 해명양로원에 전달 △'94년12월18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시 교직원 불교신도회에서 교직원 3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에서 15

적경까지 평소접수중 태도점수에 수업료 납부실적 2점 배점하여 평가원등의 사실이 밝혀졌으며 “영석고 법인이사회는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4월1일 후임교장으로 전 의정부여고 김종혁교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대해 영석고 교사 28명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표교사 5인에 대한 부당징계철회 △관선이사 파견 △도교육청의 감사결과발표는 교사

와 학부모를 기만한 작태 등 5가지 입장을 밝혔다.

이에대해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있었던 영석고 전제교사와의 면담자리에서 “징계철회요구는 사실학교법상 이사측에서 응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에서는 방법없다” “관선 이사파견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부진한 결과에 대해서

“안전관교장의 부인으로 발표된 것 밖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영석고 교사 28명은 “5개 항목이 이뤄질때까지 영석고 발전을 위해 분골쇄신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영석고 학부모 30여명이 본교 교수인 김주필(응용생물학)영석고 징계위원장을 만나기위해 지난 3일과 7일 두차례 본교를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부)

◇경주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무엇이 문제인가

관광유산손실·교통체증 야기해

국민관광단지의 동해리조트가 들어서게 된다. 이런 이유로 경상북도 당국입장은 업자들의 사업계획서를 “적합하지 않다”고 반려했으나 환경부는 “법적·행정적으로 하자가 없다. 업자들의 사업계획서만 반려 조치를 취소하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조치는 현지 실정을 전혀 생각하지않은 처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3월20일,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장 반대 범시민 결의대회’가 양북, 양남, 감포동 시민 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난날 20일 경주역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경부고속전철 경주통과와 경마장 유치 문제로 집회의도와는 다른 목소

리가 높아 혼선을 빚기도 했다.

지역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 그동안의 눈물겨운 반대투쟁을 이끌어 왔다.

시민측이 내세우는 폐기를 처리장 건설 반대 이유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장소가 신생대 단층지대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고 월성원자력 발전소와 공업단지 및 인구 밀집지역을 끼고 있다.

둘째, 대륙성기후와 해양성기후가 접하는 곳으로 폭우와 집중호우로 토한산 계곡의 토석들이 흘러내려 폐기를 침출수는 물론 월성원자력 발전소까지 뒤흔 경우 큰 위험이 야기된다.

세째, 영·호남권에서 수송해 오는 많은 폐기물 수송차량이 경주 중심도로 통과시 교통체증 및 경주 상수원인 덕동호 주변에서 차량 충돌이나 전복사고가 발생한다면 수도를 공급중단까지 초래할 수 있다.

네째, 건설장소의 반경 5km 안에만 해도 대왕암(사적 제158호), 이천대(사적 제159호), 석탈해왕 유해비, 판문산성, 기림사, 마애석불좌상(보물 제581호), 감은사지 3층석탑(국보 제112호) 등 선조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유적이 즐비하다는 점이다.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있어야 할 장소에 설치되지 않으면 빛날 수 없는 것처럼, 유익하지 않은 것이라도 주체를 생각한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어야만이 합리적인 것이다.

주민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폐기를 처리장 건설문제에 행정당국을 더 이상 대안 없이 대처해서는 안되며 지역이거주의를 조정하는 이같은 행정조치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송선영기자)

4·19 혁명 기적광고

창간 45돌

1950 - 1995

부대신문사

오늘도 참지 않겠습니다.”

1960년 4월 어느날
코흘리개 국민학생 막대동생도
붓감장사 하시던 어머니도
막노동판 울 아버지도
광화문 네거리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가리고 입을 틀어막고
그래서 이땅을 삼키려는
‘더러움’을
더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아서는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1995년을 사는
이나라의
‘청년’역시
그 ‘더러움’앞에서
참지 않겠습니다.

자유·민주·자주통일은
바로
‘청년학생’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서/을/지/역

학술세미나조록 ‘물과 건강 어떤 관계인가’

육각수 고리구조 물...생체분자가 좋아해
암·당뇨 질병원인은세포내물구조 파괴

물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하여 절대로 없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 물이 없으면 생명이 탄생하는 일도 없고, 물이 없는 곳에서 생명이 존속할 가능성도 없다. 산업사회의 진전으로 공해가 발생하고 그 영향으로 물의 상태가 악화되는 일은 인간사회의 기반을 허무는 중대한 사태이다. 그러면 물과 생명은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물이 건강을 좌우하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일반적으로 건강과 장수의 물이란 6각수를 많이 포함한 물로서 첫째, 가능한한 차가운 물 또는 온 복은물이며 둘째, 특수한 환경에서 자기처리한 물, 셋째, 물의 구조화를 할 수 있는 많은 이온들을 가진 물 등이다. 그러므로 6각수가 물에 좋은 이유는 물분자가 6개의 꼬리 모양으로 연결된 상태가 자연적으로 안정되기때문이다. 생체분자가 좋아하는 물의 구조가 6각수이며 암환부에 많이 존재하는 것이 5각수이고, 노화란 몸속의 6각수가 일부 잃어버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의학의 한계(암, 당뇨, 아이즈등의 증가, 약의 부작용)에 도달한 오늘날 의학은 몸 전체에 불가사의한 역할을 하는 물을 주목하며 연구

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건강에 좋고 질병을 고치는 6각수를 마셔야 하고 10년후에는 확실히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할 것이다.

물은 화학식으로는 H₂O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연구결과 액체의 물은 H₂O가 아니고 물분자들이 서로 결합된 (H₂O)_n로 특정구조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행동한다고 할 수 있다. 액체인 물속에는 5각형의 고리모양의 구조와 6각형 고리모양의 구조가 기본단위이고, 한 구조에서 다른 구조로 아주 짧은 시간(10⁻¹²초)에 행동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러한 구조들을 가정하면 물의 여러 이상성을 설명할 수 있다. 6각형 고리모양의 구조라고 말하면 모두 눈의 결정이나 얼음의 6각형 골을 상상할 것이다. 그러나 눈의 결정이나 얼음의 6각형 골은 액체속의 6각형 고리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액체 물분자의 6각형 고리구조는 계속 변화하여 형성·파괴를 반복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들의 수명은 1천억분의 1초정도로서 물속에서 단일한 6각형 고리를 끄집어 내어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물 전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10℃에서는 3~4%, 0℃

에서는 10%, 과냉각상태의 -30~-40℃에서는 거의 대부분 6각형 고리의 구조를 하고 있다. 눈 결정의 6각형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으며 얼음의 구조도 X선회절 실험으로 엄밀히 찾을 수 있다. 인체의 60~80%가 물로 되어있고 혈액 성분에서 90% 이상이 물이다. 생체중의 물의 구조는 물내부(Bulk)의 물과는 달리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반드시 생체분자가 좋아하는 물의 구조가 있을 것이다. 생체분자에 대한 Alanine Dipeptide에 수화되는 물의 62%가 6각형 고리, 24%가 5각형 고리이고, 14%가 기타 구조이다. 그러므로 6각형 고리구조의 물은 생체분자가 좋아하는 물이다.

암이나 당뇨병은 여러가지 원인이 복합하여 생기는 병이다. 이들 병은 복잡해 보이지만 물환경을 NMR(자기공명)스펙트럼자 완화시간 측정결과에 의하면 암세포나 당뇨병환자의 B세포의 물은 정상세포에 비해 구조화 정도가 적어 움직이기 쉬운 물이다. 따라서 세포속의 구조화된 물은 세포의 생리활성을 정상으로 보존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암이나 당뇨병은 어떤 이유로 인해 세포의 물구조가



◇자연과학연구소(소장=성용길·화학)는 지난 7일 동국관(L301)에서 한국과학연구소 전문식박사를 초청해 ‘물과 건강’에 대한 강연을 개최했다.

파괴된 공동원인에 기인한다. 이것이 물 환경설이다. ‘심상하다’ ‘물방울같이’는 젊고 활기차다는 것을 표현하며 ‘시들다’는 사람이 원숙한 경우를 나타낸다. 영어에도 ‘In Smooth Water’ ‘Water of Life’등의 표현은 생명이 물속에 있음을 시사한다. 경험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수분함량이 감소한다. 따라서 노화란 “유기체의 각종기관, 조직 세포나 분자레벨(Level)의 기능저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볼 때 노화는 체내의 구조화된 물이 체내로 빠져나가 구조화가 적은 무질서한 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다.

사실상 노화현상과 수반하여 구조형성이온인 칼슘이온등이 체외로 배출됨으로써 뼈가 약해지고 치아가 약해지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물과 단백질의 구조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며, 대형계산기(CRAY)실험으로 정상 단백질 속 물이 주로 6각수 구조를 형성하며 이상(불안)단백질 속 물은 6각수 구조가 줄어드는 대신 5각수 구조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현재 사람 100인중 한사람 꼴로 해모글로빈만 단백질을 구성하는 140개의 아미노산중 한개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되어 생기는 빈혈의 원인 규명도 연구중이며, 단백질이 많은 아미노산의 배열에 의해 형성되는 사실로부터 발암의 원인과 물, 빈혈의 원인과 물 및 먹는 화장수 개발등의 응용에 연구가 한창 진행중이다. (정리:사회부)

학술단신

‘불교신행 그문제와 방향’

부처님오신날
기념 세미나

불교문화연구원(원장=권기중·불교학)은 다음달 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세미나를 개최한다.

‘불교신행, 그 문제와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세미나는 동국관(L401)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진행되며 주요 발표제목 및 발표자는 △한=불자의 신행형태=강건기(전북대 철학과 교수) △경전제 나타난 불교신행=채인환(동국대 신학과 교수) △세종의 새로운 해석과 현실화=복정배(동국대 불교대학원장) △불교신행의 새 방향=정병조(동국대 교서관장)이고 최현각(동국대 철학과 교수) △원해스님(조계종 교육원장) △서윤길(동국대 불교대학장) △홍사성(불교 TV제작국장) △박광서(서강대 물리학과 교수)씨가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밤하늘 관측...

당신을 팔 없이 사랑해... 아마도 그런 심정을 나타내는 별은 처녀자리와 “스피카”일 것이다. 밤하늘 동쪽에서 빛을 쬔구는 그녀는 마치 그리움의 눈물을 떨구는 것가...

언젠가 사랑을 느껴본 당신이라면 부디 동쪽하늘에서 떠오르는 별... 스피카(spica)를 찾아보길 바란다.

저녁 9시에 떠서 자정이 되면 남쪽하늘에, 그렇게 찾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서울이라 아마도 그 별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에...

이렇게 별들을 움직이는 건 지구의 자전이며 공전이다. 별들이 북극점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의 일주운동을 하는 건 지구의 자전에 기인한 것이고 계절마다 별자리가 바뀌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탓이다. 겨울의 상징이던 웅장한 오리온자리가 사자의 등장으로 서쪽하늘로 도망가 버리고 그 뒤를 이어 생명의 상징인 처녀자리 그리고 농사의 상징인 목동이 등장한다. 왼손에 복두칠성이라는 쟁기를 쥐고 나타난 목동(arcturus)은 우리에게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별이기도 하다. 그 옛날 조상들은 이 별의 등장으로 농사의 시기를 알았으며 스피카를 보면서 겨울내내 윤초친 가솔을 열었다. 과연 별자리에는 그 별들의 자연적 현상을 전설로서 엮어 만든 역사책의 주인공들이 있다. 사실, 딱딱한 좌표로는 이해 하기가 어렵기에 요즘도 우리 별자리들은 그 별자리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아름다운 전설과

과학에세이 -별자리 관찰방법

적도의식 마운트, 이동하는 별 추적 관측기구

렌즈 북극성주위 고정·B셔터...사진촬영가능

함께 말이다. 혹, 자신의 집에 아름다운 별들을 그려보고자 하는 분이라면 자연과학 연구회에서 ‘skyglobe’라는 프로그램은 무료로 카피해 주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지구의 자전주기가 24시간이므로 자전에 기인해서 일어나는 별들의 일주운동의 주기역시 24시간이 될 것이다. 즉, 1시간에 15도씩 움직이게 되는데, 별들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에겐 이것이 가장 큰 골치거리가 된다. 망원경으로 별을 포착해도 별들이 너무도 빨리 움직여 시야에서 사라지기 때문에 별들을 추적하면서 관찰할 기구가 필요한데 그 기구가 바로 적도의식 마운트이다. 일주운동의 중심이 지구의 자전축이기에 그 자전축과 일치하는 북극점을 찾아 망원경을 별들이 돌아 가는 속도만큼 시계반대방향으로 돌려준다. 값이 너무도 비싼 탓에 아마추어에겐 부담이 되는 장치이지만 북극점을 중심으로 망원경을 돌려주는 원리를 생각한다면 적도의식 마운트의 제작은 그리 어렵지만

은 않을 것이다. 대학생활의 자그마한 보람으로 남을지도 모를일이다. 흔하길 망원경을 구입할때 배율을 증시하는데 그렇게 배율이 높은 것이 좋으면 현미경을 사라고 말하고 싶다. 흔하길 눈은 사람들이 시력이 좋다고 한다. 우습게도 그건 정말 사실이다. 눈이 클수록 동공의 크기가 크므로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망원경에서 렌즈의 구경이 크면 볼 수록 더 많은 빛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배율을 높혀도 상이 잘 흐려지지 않는다. 현미경 아래에 전구를 설치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배율을 높이면 상이 어두워 지고 흐려지므로 필요한 빛을 전구로 더 보충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천체에서는 그 별에 가서 별의 밝기를 조절할 수 없기에, 하는 수 없이 많은 빛을 모으기 위한 구경이 큰 망원경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상점에서 배율만 따지고 망원경을 고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구경이 크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다. 천문대를 세

울때 그 자리를 우선 엄청나게 많은 콘크리트를 깔아 망원경과 일체시킨다고 한다.

즉, 무거울수록 상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되므로 무거운 다리를 만드는 것이다. 망원경 제작이나 구입시 망원경의 다리 역시 아주 중요한 것이 된다. 무겁고 지면과 안정적으로 밀착이 될 수록 상은 또렷하게 보이는 것이다. 이 사실은 카메라 선택에도 도움이 된다. 소위 “초경량” 카메라는 바로 “왕흔들림”카메라를 뜻하는 것이다. 바림과 같은 자그마한 진동에 꿈쩍도 않는 구경이 크고 이왕이면 적도의식 망원경은 바로 별받지기의 꿈이다. 이러한 망원경을 가진다면 목성의 무늬와 그 위성들을 언제라도 사진으로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카메라를 북극성 주위에 고정하고 B셔터로 3시간 정도 매우 어두운 곳에서 고정촬영을 하면 그 유명한 별의 일주운동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있다. 이로써 당신은 이제 별 관측의 초보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다. 지금 손에 사진기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시간이 저녁이라면 별을 찍어보라고 말하고 싶다. 앞서 설명한 별들의 일주운동을 말이다. 릴리즈가 없으면 T-셔터라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당신의 두 손에 만약 카메라가 없다면 동쪽 하늘 스피카를 찾아 봄의 말없는 사랑을 느끼는 것도...

정성욱

(자연과학연구회)

뜻깊은만필

자수성가

흔히 들는 말이다. 자수성가. 사전식의 정의는 이렇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엿한 한 살림을 이루는 일. 자수성가. 참으로



윤범모

멋 있는 말이다. 온갖 역경을 딛고 스스로 우뚝 서는 일. 박수를 쳐 줄만한 일이지 않은가.

자수성가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참으로 세상은 흥흥해졌다. 외국유학을 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가슴을 아프게한바 있다. 이런 한 술 떠서 대학교수직 아들의 부친살해라는 보도까지 나오게 되었다. 오늘날 암구정등은 휘황찬란하다. 심야의 거리가 마치 외국의 어느 거리와 같다. 그저 소비만이 미덕이란단다. 나 혼자만 즐기면서 잘살면은 그 뿐이란단다.

오랜만에 시골친구를 만났다. 우여곡절 끝에 조그마한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성공한 중소기업의 사장치고는 겸손해 보였다. 하지만 그의 과거는 참으로 얼룩으로 물들여져 있다. 고등학교마저 제대로 다니질 못했다. 문재이었다. 정학, 퇴학과 같은 단어는 그의 애용어였다. 뒷골목에서 살았다. 가난함의 절망은 뒷골목에서나마 젊은 열기를 벗어나게 했다. 하지만 살다보면 인생의 전환점도 있게된다. 성실히 살았다. 사회의 밑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다. 물론 고통의 나날이었다. 그 친구의 옛날 이야기를 듣다보면 무슨 인간승리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얼마전 우리사회에서 무슨 재해가 일어났을 때 억단위의 거금을 회수하는 것을 보았다. 그것도 뒤에서 조종하.

내 시골친구는 말했다. 우리들의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회다. 내가 그를 두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말했다가 혼난 일이 있다. 세상에 자수성가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었다. 물론 당사자야 고생하면서 노력했겠지만 세상에 주위의 도움 없이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없다는 논리였다. 주위의 협조는 커녕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 갈 것을 내가 쟁기게되다 보니 부자도 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였다.

자수성가. 지난 세월에는 미덕의 상징과 같은 말이었다. 그러면서도 계속 효용성이 있는 말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이 하도 흥흥하다 보니 그 의미가 새로워지기도 한다. 도대체 위정자부터도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는 세상이니 학생을 보고 누굴 닮으라고 가르칠 것인가. 자기만 아는 세상. 진정한 의미의 자수성가는 없다. 세상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

경원대학교수·미술평론가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음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
노력하는 젊음이 있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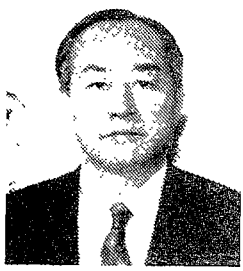
꿈과 낭만이 살아있는 대학생활—
우리 삶을 통틀어 가장 자유롭고
정열이 넘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뜨거운 가슴과 또렷모련한 눈빛으로
새로운 학문의 깊이를 더해가고
선명한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는 젊은이들—
이들이 바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입니다.
효성은 항상 노력하는 젊은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 효성물산 ○ 동양나인 ○ 동양폴리에스터 ○ 동양원공 ○ 효성중공업
○ 효성에버라 ○ 효성바스코 ○ 한국에너지머플러스텍
○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 효성데이터시스템 ○ 한국타이어
○ 한국전력 ○ 대전광역시 ○ 동성 ○ 대성 ○ 효성금속 ○ 효성기계

죽사

21세기 역사선도 지식생산성 제고를



대학신문은 그 대학의 얼굴이요, 또한 목소리다. 동대신문이 동국 대학교의 얼굴, 그리고 목소리로서 고고의 성을 지른 지도 어언 45주년. 이제 어엿한 장년 이 되었다.

해방후 한국대학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만 은 않다. 6·25, 4·19, 5·16, 6·3, 5·17등 수많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겪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때마다 우리 대학들은 고난과 시련에 직 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과 시련속에서도 한국대학의 젊은 지성들은 자유와 진리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도 희생 하는 순교자적 정신을 한번도 잃은적이 없었 다. 세계 대학의 지성사에서 불과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역사 가운데 대학이 자유와 진 리, 민주를 위해 이처럼 한 시대의 역사를 선도하고 창조한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 을 것이다.

그리고 동국대학교는 4·19이래 이러한 시 대창조의 역할에 있어 언제나 선도적 입장에 있었고, 그 안에 동대신문의 변천사는 '지성 의 독려'가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동대신문이 그간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민 주주의의 의지는 결국 '동국'이 갖고있는 일체 평등, 일체자유의 불교적 전학이념에서 창출 되어 나온 것임을 감안 할 때, 동대신문의 '근대사를 더욱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는 이점에서 그간의 동대신문의 노고를 칭찬 하고 싶다. 그러나 대학신문의 사명은 또 다 른 곳에도 있다. 학풍의 조성과 대학문화의 창달이 그것이다. 대학신문의 고민은 아카데 미즘과 저널리즘을 어떻게 조화하는냐 하는 데 있다고 한다. '신문'인 이상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또 '대학'의 범주를 벗어 날 수 없는 이상, 그것은 학문 적 차원이어야하고 창조성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데 대학기자들의 고뇌가 있을 것이다.

초기 동대신문은 학술적 보도에 많은 지면 을 할애, 아카데미즘을 추구한 성격이 강한 반면, 60년대 이후는 앞서 말한대로 대사회 적 발언·비판이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 했 다. 시대의 반영이라고 생각되지만, 이제 동 대신문의 얼굴과 목소리가 '고급지식인'을 사회에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의 생산성을 제 고하고 그것을 위해 학문구조를 과감하게 개 혁할 수 있는 그러한 매체의 모습으로 변화 하기를 기대한다. 학생기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

송 석 구

(본교 총장)

편향된 사회시각지향 보편적 가치 살려야



먼저 올해로 창 간 45주년을 맞는 우리 모교의 신문, 동대신문의 불혹을 기려 충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돌이켜 보면 마 치 어제같은 학창 시절이 주마등같이 지나간다.

6·25를 거쳐 서울로 환도를 하고 그 삭막한 시절, 그래도 동학의 기슭에서 꿈을 심고 키 우던 동문들.

지금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무럭 무럭 서 있는 오늘, 참으로 감회가 깊다.

1953년 환도하던 그 해 겨울 유난히도 춥 던 날, 신문 속간을 위해 지금은 고인이 된 이창대형과 최봉수 학장님을 찾아뵙던 일, 백철선생님께서 '셋발'이라는 꽤 이름있던 일 식집에서 친히 뜨거운 국물과 밥을 사 주시 던 출고 배고픈 시절의 고마운 기억 등, 지 금은 다 아득한 옛일로 되살아날 뿐이다.

신문이 상업지든 기관지든 간에 본래의 사 명에는 변함이 없겠지만 그래도 학교신문, 특히 대학신문은 일반 신문과는 확연히 구별 되는 무엇이 있어야 한다. 대학은 학문하는 곳이기때 그렇다.

그러나 너무 아카데미즘에만 치우쳐도 재 미가 없다. 그래서 신문의 기능 중 계도기능 과 비판기능을 두루 섞어 대학생들의 세계를 구축하려 노력한다. 여기에 대학생이 만드는 학교신문으로서의 특색이 드러나기 마련이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 나라의 모든 대 학신문들이 그 본래의 사명적 기능에서 벗어 나 어떤 특정한 사회적 기능에 쏠렸던 때가 있었다.

물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역사적 배경과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런 시기에 우리 동 대신문은 어떠한가, 조금은 한쪽으로 치우 쳤던 것을 기억한다.

민주주의의 본령이 여론이라는 것을 모를 사람이 없겠지만 그 여론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보편적 가치 기준으로서의 정론이라야 만 한다. 만일 그 여론이 어떤 계층이나 주 관에 의한 조작된 것이라면 그것은 오도된 여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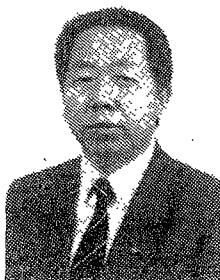
이런 뜻에서 대학신문이 지녀야 할 글도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교의 발전도 동 대신문의 발전과 그 축을 같이 한다고 할 때, 새삼 동대신문의 무게는 천근만근이 된 다.

우리 모교의 신문, 동대신문의 45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그 동안 아무말없이 신문만들기에 매몰려 오신 많은 선배와 후배 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올린다.

황 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국제화시대 이끄는 보물제1호가 되라



오늘 우리 동대 신문이 창간 45주 년을 맞이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 는 바이다. 비록 대학신문이라는 특 수성을 지녔지만 그 기능면에서나 미치는 영향등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않기 때문에 동대신문은 오랜 역 사만큼이나 전통이 자랑스럽고 역할이 컸다 고 자부하고 싶다.

사실 동대신문은 오늘날 중요하지한 앞으 로가 더욱 중요하다. 또 이러한 역할과 사명 을 대해야할 동대신문이기에 나는 감히 동대 신문을 '동국대학교 보물 제1호'라고 말하고 싶다. 때문에 후배들에게 이러한 주문도 가 능하다고 본다.

그 첫째는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대응이 다. 세계는 날로 달라지고 있으며, 국경이 없 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다. 그 런데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동대신문에 경쟁 국력의 대학생활과 학문태도, 새로운 학술정 보물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점이 다. 신문이 선진국가의 모델을 앞장서서 소 개함으로써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중의 하나 가 될 것이다.

둘째는 동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역 할을 해주었으면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각계각층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인정받으며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동문들이 수없 이 많다. 이들에게 동국인이라는 소속감을 심어주고 재학생들에게는 훌륭한 전형을 새 름게 창조하고자 하는 기풍을 진작시키는 역 할도 동대신문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동국의 자랑거리를 찾아 소개한다든지, 자신의 삶을 윤곽하게 가꾸어 나가는 동문들 을 찾아내어 클로즈업시킴으로써 타산지석 이 되게 한다든지, 동국비전의 여론을 수렴 하는 것들이 그러한 작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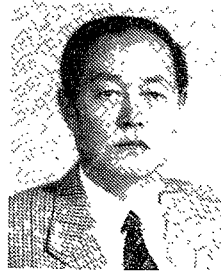
셋째는 동대신문이 동국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다짐이 있어야겠다. 오늘 우리는 동대신문이 그 순기능 못지않게 역기능이 없 었는가에 대해 다시한번 검증해보는 것도 필 요하다고 본다. 우리는 간혹 시(時)의 인정 에 인색하고 비(非)의 측면만 들추어내는 것 을 용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냉철한 사고와 이성이다.

이제 동대신문은 마흔다섯이라는 중후한 중년에 비유되는 연륜을 쌓았다. 동대신문의 오늘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솔 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진 역사이기에 대학 언론의 위상정립에 있어서도 단연 앞서가야 할 것이다.

임 덕 구

(본사동인회 교문·디플로머시 발행인)

뿌리깊은 문학열정 평형감각 잃지않기를



동대신문 이 창 간45주년을 맞는다 니 참으로 깊은 감 회를 금할길 없다. 동대가 국내 어느 대학에 비해도 역 사가 오래이고 학 문의 맥이 깊은은 세상이 다 아는 일 이다. 그리고 건학

의 뿌리가 역사상 우리 겨레와 운명을 같이 하고 민족과 성의(盛衰)를 함께 한 전통 불 교에 있음도 세상이 다 안다. 이와같이 그 역사가 길고 뿌리가 확실한 대학이므로 그동 안 학문적 축적은 물론 수많은 인재를 배출 해왔음은 너무나 당연하다.

동대신문 은 이같은 유서깊은 동대의 삼 의 귀재이요, 동국인의 사상의 거울이다. 동 대신문 을 보면 동국인들의 학문적 성취를 실감함은 물론 동국인들의 숨가쁜 호흡을 느 끼게 된다. 때로는 섬광같은 예지와 농축된 학문의 정수(精髓)와도 만나고 때로는 서릿 발같은 대학의 양심과 노도(悠瀟)의 함성을 보고 듣는다. 특히 잊혀지지 않는 것은 뿌리 깊은 문학에의 열정이다. 동대는 옛날 해화 전문이라 우리겨레의 문맥을 이어온 역랑있 은 작가 시인의 산실이기도 하며 그 싹수가

동대신문 의 터밭에서 움터난 것이다. 오늘 날의 우리 대학교육은 대학의 대중화라는 세 계적 추세에 맞춰 양산체제에 들어서 있다. 교육의 질에 앞선 이양산체제가 대학과 학문 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일면이 있기도 하지만 학문의 대중화, 정보의 대중화를 통한 우리 사회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한차원 높여준 공적을 특과할 수 없다.

창간 45년을 맞는 동대신문 에 당부코자 하는것은 이같은 대중사회에서의 대학신문 의 기능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것이다. 학 문과 정보의 대중화를 표방하는 것이 대학의 기능이라면 대학신문도 이같은 대학기능의 대중화와 내실화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오늘의 대학이 다원화사회를 앞장서서 이끌 고 있다면 대학신문도 대학안에서 분출하는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는 극량(極量)과 평형 감각을 가져야 한다. 한 시대의 대학신문들이 독재적 정치체제에 합작하기 위한 방편으 로 평형감각을 일탈한 일면을 엿보인 경우가 있었다면 이는 대학의 양심에 충실하기위한 어쩔수 없는 몸부림이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학과 대학신문의 사회 적 역할을 감안할때 이는 한시바빠 극복해야 할 현안임을 말하고 싶다. 특히 동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오랜 역사와 국학을 중시한 학 문적 전통을 가진 학교인 바에는 동대신 문 은 대학의 대중화, 국제화의 흐름에 함께 역사의 뿌리에 충실하는 평형감각에 특히 유 의하는 신문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각별히 당부하고 싶다.

이 중 석

(동아일보 본설교문)

축하만평

묵직하다!
세월의 무게만이 아닌
열정과 노력의 무게이길...



최 경인

(야간감각 무역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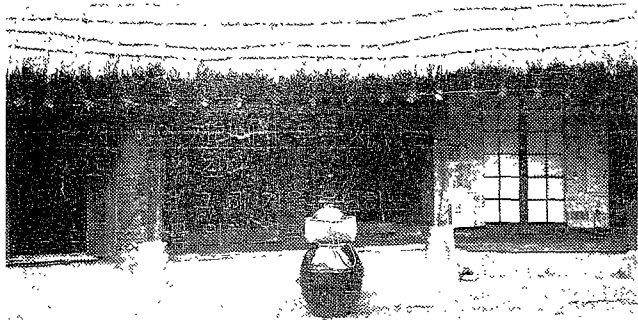
김 상 남

(사범대 지교 95졸)

최경인군은 본지 만화 '붉음이', 김상남 동문은 '동국만평' 필자였습니다.

탐라기행

알고보면 우리를 몸에는 또다른 '문화'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제주'라는 문화입니다. 종종 잊고 사는 내 나라 땅 '제주'
한때는 '제주'도 하나의 나라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땅에는 아직도
탐라국이라는 이름의 문화와 역사가 본래 모습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제주의 풀한포기, 바람 한점도 결코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분들 가운데에는 이곳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서울과 부산에서 매일 35편 이상 제주에 모시고 있습니다. 예약및 문의 : (02) 756-2000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

동인현주소

80년 이후

동대신문 역사

'동국의 역사와 함께 한...'이라는 말은 선풍 독자들에게 외닿지 않는 표현일지도 모른다. 당대에 당대의 역사를 평가할 수 없으며 위 표현은 동대신문의 역사에서 그렇다는 말이다.

동대신문의 역사를 지면에 국한시켜 살펴본다면, 그것은 곧 동국의 역사를 조명하는 것이며 대학과 사회의 관계, 대학의 이념과 사명이 어떻게 변화발전 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창간 45돌을 맞아 동대신문 지면을 중심으로 격동의 80년대와 변화와 모색의 90년대를 재조명해 보려 한다.

(편집자)

지면체제와 편집

776호 (80년9월9일자)부터 격주 8면체제 모습을 보인다. 그동안 부정기적인 지면 체계는 이후 4·8면 체제로 각 면별 특성에 맞는 기사들이 배치된다. 이후 4면짜리 신문발행 횟수가 감소되면서 87년부터 완전한 8면체제를 확립한다. 91년 과도기적인 8·12면 체제로 한화기를 운영하다 다시 2화기부터 현재의 8면체제와 지면 구성을 이루게 된다.

편집에 있어서는, 1012호 (89년3월1일자)전면가로쓰기로의 전환을 시작으로 이때 제호와 지면구성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이후 점차 세로편집의 요소들이 감소하고 94년 취재면 단추선(세로선)을 없애면서 현재의 편집형태를 보이게 된다.

학내 기획기사

편집 변화는 곧 시대와 독자의 요구

정치·사회 기사에서 학내기획·문화기사로 관심이동

80년 이후 현재까지의 학내 기획시리즈를 살펴보면 동국의 정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대중화시대의 대학' (82년 6월8일자부터 5화) '대학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 (84년3월6일자부터 14화) '동국의 뿌리를 찾아' (84년3월27일자부터 6화, 이병주 교수가 시리즈를 모두 집필) '동국80년 길목에서' (85년5월7일자부터 20화) '오늘의 동국사학을 해부한다' (85년9월17일자부터 4화) '동국80년의 뒤안길' (86년5월13일자부터 8화) '단과대학에게 듣는다' (83년4월7일부터) 등은 대학의 시대적 사명, 동국의 역사, 제반 학내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들이 검토되고 있다.

기자의 심층취재기사 형태도 연재된 '대학은 지금 고민하고 있다'와 학생 교직원과의 좌담으로 진행된 '동국80년 길목에서' 시리즈 내용은 이후 제기된 학내 제반문제와 그 극복방안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시말해 동국은 84년 이후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다는 확인을 하는 셈이다.

학술 논단

사회면 (학술·기획·특집면 형태)에 실린 학술적 논문들은 85년을 정점으로 다른 양상을 띄게 된다. 85년 이전의 논문들이 각 전공분야에서 이룩한 순수 학술적인 논문들이었던 반면 85년 이후의 논문은 시사적인 문제들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 학생들의 논문 (80대 이상의 분량)이 실림으로써 학생들의 연구성과들이 발표된 반면 85년 이후 이러한 학생논문의 게재

횟수가 줄어든다.

'한국의 불교미술사' (81년 3월17일자부터 4화) '한국문단 무엇이 문제인가' (81년 9월15일자부터 8화) '신라문화 그 맥을 찾아' (83년 3월22일자부터 10화) '20세기 세계문학의 흐름' (84년 3월27일자부터 11화) '80년대 초반의 한국문화성향' (86년11월18일자부터 4화) '문예시대 문제작가' (87년 8월25일자부터 8화, 학생이 쓴 작가론) 등은 본고 학문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시리즈들이다.

그 중 '시와 모국어' (84년9월4일자부터 12화) 시리즈는 본사와 국문과 학생들이 공동기획하고 학생필진으로만 이루어진 최초의 실험적 시리즈이다.

사회면 시리즈의 변화

진보적 시각으로 사회 제반문제를 비판·지적하는 시리즈가 본격화된 것은 86년 이후이다. 그전에도 이러한 기획이 지면화되긴 하지만 86년 이후의 기획들은 당시 사회상황과 관련, 그전 기획들과 새로운 양상을 띠고 점차 '사회변혁운동에서의 대학언론'차원으로 발전한다.

'한국사회구성체의 현대적' (86년10월7일자부터 6화) 시리즈를 시작으로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재생산' (88년5월10일자부터 7화)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의 재통일' (91년 9월11일자부터 8화) 등은 당시 대학신문과 지하출판물이 아니면 소화하기 힘든 주장을 담고 있다. 86년이후 90년까지 이러한 경향은 학생운동과 변혁운동에 대한 정권의 유희조치로 이전까지의 억눌림이 지면에 소개된 결과이기도 하다.

하다.

또한 '바람직한 대학생상을 위하여' (88년 3월1일자부터 4화) 시리즈를 시작으로 이후 신입생을 위한 기획들은 대학과 대학인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밝히고 있다.

85년 총학생회 부활 이후 학생회 전반에 대한 크고작은 기획들이 지면화된 것도 지면흐름의 한 특징이다. 91년 '진단과 모색 90년대 학생회'시리즈는 학생회에 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던 당시 상황과 본교학생회 현황에 비추어 그 지향점을 밝히고 있다.

90년 이후

90년대를 흔히 변혁기 과도기 모색기 등으로 표현하듯이 급속한 변화들이 대학과 사회에 나타났다.

본지는 정치·사회적 기획에서 점차 생활·문화·학내 기획으로 지면 내용이 변화한다. 사회면은 시사적인 기획위에 학내 기획을 강화하였다.

문화면은 생활문화운동, 영화·연극에 관한 기사에 비중을 두면서 대중문화와 구별되는 대학문화 구현에 집중한다.

또한 93년부터 '컴퓨터 이야기' 등 그동안 소홀히 취급된 과학관련 기사가 지면화되고, 94년 '세계로 가는 대학'시리즈는 교육의 세계화 경향을 반영한다.

또한 90년 여론면이 새롭게 제기되면서 91년 여론매체면 신설, 92년 모니터제도 실시를 걸쳐 현재의 동대신문 2면의 모습이 만들어진다.

의미있는 기사 몇개

'특이2'가 대한국장에서 절찬리 상영되었던 1980년, 대한국신문은 여백의 상치들을 남기며 시대의 아픔과 분노를 겪어야 했다. (신문은 80년 5월13일자 2면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학생회·신문사 선언문 내용)

765호 (80년 5월13일자) 1·2면에 실린 '유신독재 반대 각계 시국선언문'은 주요 내용이 삭제된 채 허연 여백을 남기며 게재된다. (이러한 신문은 '백두신문'이라고 하는데 80년대 앞날한 시대상황을 말해준다.)

800호 (81년 9월15일자)에 실린 통행금지 현상취체 '12시부터 4시까지,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통행금지 시간의 모습을 그리면서 폐지론을 주장하는데 다음에 1월15일 정부는 통행금지를 전면해제한다.

965호 (87년5월5일자) '성숙된 민중의식과 괴리된 한국불교'기획은 처음으로 변혁운동에서의 불교의 역할과 불교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보인 기사였다.

988호 (88년3월24일자) 20대 총학 좌담은 총학생회에서 후보자의 공약과 유세가 처음으로 지면화된 기사이다.

지면의 변화는 시대의 요구

80년이후 본지의 기획시리즈를 중심으로 살펴 본 지면평가는 대학의 항상 그

자체로서 존재해야 하며 동시에 사회·사대적 사명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확인한 작업이었다. 지면의 변화는 항상 당시의 대학·사회와 상황들과 무관하지 않다. 오히려 선도적이며 진보적이었다. 최근의 본지를 비롯한 타대학 지면을 살펴보면, '혹 대학은 그 자체로 존재하면서도 사회속에 있다'라는 당위가 흔들리지 않는가 의문이 든다. 대한국신문의 지면은 또한 그 주주자인 학생들의 요구와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은 언제나 대학이 지니는 이념과 사명 위에 존재할 수만은 없을 때가 있다.

또 독자들의 질책과 반응없는 살아있는 지면화 될 수 없다. 때문에 동대신문의 역사는 곧 동국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동국인의 시대적 고민, 갈등, 의지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 병 민
(본사 전 편집장)



4월15일로 창간 45주년을 맞는 동대신문은 대학의 목적으로서, 사회정의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그 역할과 사명을 다해왔다. 그 주역들이 바로 기자들이다. 기자들은 대학언론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동국발전이라는 명제 앞에 용기를 얻고 견뎌왔다. 대학시절 2-3년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한호 한호마다 땀과 열을 다 바쳐 선배가 닦아놓은 길을 후배가 있고 이어 어느새 지령도 제1,172호를 맞고 있다. 우리 동국의 바른 역사를 쓰는 데 앞장섰던 그 기자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동대신문 기자수는 연인원만해도 3백여명을 헤아린다. 대학시절 언론과 관계했던 인연으로 언론사가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학총장 3명, 국회의원 2명, 대학교수 20여명, 문화예술계, 교육계, 기업체등 각분야에서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다. 이중 기자출신들의 모임인 동대신문동인회가 파악한 주소를 통해 그들의 사회활동상을 조명해본다. (사망자 및 주소 미파악자는 명단에서 제외됨)

△이원운 (60불교) = 한국불교교화원총재 △이병주 (60국문) = 전 동국대 대학원장

◇본사 동인은 지금...

동국발전 앞장섰던 기자들, 사회발전 활약중

철학) = 동국대 총장 △박정희 (62영문) = 시인, 한양여전 교수 △김기학 (63경제) = 육군중장군행정학교 교수 △김원래 (63국문) = 영화사 대표 △윤정광 (64영문) = 방송작가, 대한출판문화협회 부회장 △송재운 (64철학) = 동국대학교수 겸 동대신문사 주간 △이태수 (64법학) = 서울 민사지법 동기과장 △장문평 (64국문) = 문화평론가 △하종현 (64법학) = (주)국도 부사장 △김영주 (64법학) = 경성대 교수 △민경봉 (64법학) = 경라건설 대표 △최 원 (64국문) = 시인, 전 대전MBC 상무이사 △이우석 (64국문) = 시인, 문화예술사 대표 △임향근 (65경제) = 원광대 교수 △이창우 (65 농경) = 안산 삼일학교 교사 △오익환 (65법학) = 경향신문 조사연구실장 △이창식 (66사학) = (주)MBC예술단 상무이사 △최무정 (66법학) = 연합물산 (주) 상무이사 △이환우 (67경정) = 동국대 교수 △한용환 (66영문) = 동국대 교수 △박정영 (67정외) = 신한광학 운영원인 △양영호 (67경정) = 삼성미술문화재단 홍보부장 △정남기 (68경정) = 연합통신사 조사부장 △안양자 (68국문) = 방송국작가 △박태원 (69국문) = 진선여고 교사 △신문호 (72식공) = 전 풍년제과 대표 △양택규 (70국문) = 진선여고 교사 △정정수 (70경정) = 동아일보 편집부 차장 △윤일병 (74정외) = 대한통운 (주) 해외사업부 △영환국 (71법학) = 한국 전력공사 충남지사 영업부장 △김대환 (74경제) = 주력은행 △윤정환 (71국문) = 경성일보 편집국장 △심종원 (71경제) = 한국인삼수출공사 △이봉춘 (72불교) = 동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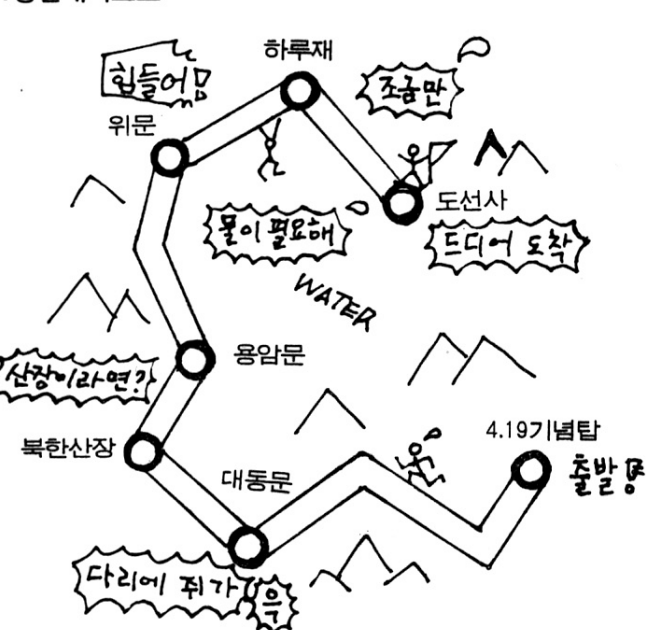
대 교수 △최순열 (72국문) = 동국대 교수 △박대석 (75경정) = KBS 북경특파원 △김명수 (72경정) = 동부건설 (주) 중부지사장 △서현석 (73국문) = 신흥기업 (주) 총무이사 △김천일 (73식공) = 롯데쇼핑 (주) 식품과장 △이춘만 (73식공) = 이원대표 △신관호 (73경정) = 동국대 1백주년본부 사업부장 △임성규 (73경정) = 정훈농산 대표 △김형근 (74불교) = 도서출판 동쪽나라 대표 △이문원 (74국문) = 상일여고 교사 △나이나 (74경정) = 한국투자신탁 영업업무개발팀 부장 △최무남 (74경정) = 국제문제 연구소 △김용구 (74농경) = 세류청과 (주) 대표 △심교준 (78경정) = LG전자 시장전략실장 △박남준 (74국문) = 방송작가 △하광식 (75법학) = 서해주공 (주) △윤태경 (75국문) = 대구CATV이사 △양재원 (78무예) = 아시아자동차 (주) △최 성 (80국문) = 남서울산업대 교수 △윤범보 (77미술) = 미술평론가, 경원대 교수 △정조재 (79국문) = 신광여고 교사 △나중성 (77미술) = 중앙일보 편집부 차장 △고옥석 (79무예) = 현대정공 샌드래고 미주법인 부지사장 △김후석 (76경정) = 삼성화재보험 홍보보상팀 과장 △안정훈 (76사학) = 공군 공보관실 (중령) △송현철 (80경정) = 금강제화 총무부장 △이상봉 (77국문) = 문일고교 교사 △함주용 (80경제) = 강원보로마이트서울사무소장 △송문민 (80무예) = 아시아무예 차장 △김옥순 (77영문) = 삼성환경 대표 △문효근 (81국문)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기획부장 △구광모 (81행정) = 한국기계연구원 정책기획과장 △한주선 (79무예) = 효성

물산 (주) 운송보험부장 △허승수 (81행정) = 국민은행 중소기업부 대리 △김택근 (79국문) = 시인, 한국편집기자회 회장 △박상근 (79경제) = 개인사업 △최길동 (79통계) = 김천 문성중 교사 △김승환 (82전산) = LG소프트웨어 △이 정 (80승가) = 불교방송 조사자료 부장 △이철호 (80행정) = 경향신문 편집부 △권윤옥 (80국문) = 안천중 교사 △한민수 (84국문) = 문화평론가, 경향신문 편집부 △권일영 (83경제) = 중앙일보 출판 기획부 기자 △안동일 (83철학) = BBS신규 PROJECT △박원배 (82국문) = 경향신문 편집부 △노명호 (82무예) = 신세계백화점 △이광일 (82토목) = E- LAND기획실장 △고기용 (83국문) = 한국통신금융고객사업부 대리 △김재천 (82연영) = (주) CEDECO 개발부과장 △김찬주 (83정외) = 국회의원 보좌관 △정희성 (83-국문) = 정매거진 대표 △최은영 (88국문)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부 △황해창 (88경정) = 내외경제신문 사회부 △정관희 (86국문) = 한국경제정보통신팀 전문위원 △김하순 (86무예) = KBS- TV2국 PD △심규박 (84통계) = 동국대 교수 △나혜숙 (84국문) = 장평중 교사 △장길수 (84경제) = 전자신문 취재부 △허순범 (84국문) = 공문고교 교사 △박광열 (84농경) = 한국전기신문 취재부장 △박성태 (84통계) = 외환은행 사무관리부 △양희태 (84경주영문) = 학산문화원장 △남 선 (87영문) = 불교방송 종교문화부 △최종홍 (85국문) = 불교방송 신규 PROJECT △김금희 (85국문) = 불교 TV, 스크립터 △이택 (86영문) = 전자신문

취재부 △최사건 (88경정) = 현대정공 자재부 대리 △박경석 (88교육) = 교원복지신보 편집부 △서종철 (88경주법학) = 경주일보 취재부 △창의식 (88경정) = 문화일보 편집부 △임지수 (86경제) = 전자신문 편집부 △정영준 (89농경) = 유영실업 (주) 내수사업부 △서재섭 (86경주경제) = 대한강원 (주) 총무부 △이경우 (90토목) = 전자신문 편집부 △김영태 (87국문) = 내외경제신문 편집부 △최창상 (87화학) = 합동화학 (주) △박민숙 (87철학) = 힐튼호텔 비서실 △정연도 (87경주조경) = 전 총동창회 간사 △송은경 (87경주국문) = 중학 교사 △강태환 (88불교) = 주간불교신문 기자 △김홍부 (91농경) = 한국일보 편집부 △정병남 (88국문) = (주)우리교육·입문부 △최준호 (88교육) = 한국유통조사연구소 홍보담당 △이상협 (89경주국문) = 고교 교사 △김승환 (89경제) = 대한강원 (주) 홍보실 △허 순 (89국문) = 경향신문 편집부 △홍기영 (81법학) = 강원산업 (주) 기획조사팀 △김용태 (92사학) = 일간 무역 산업부 기자 △최희환 (92일화) = 해사프리스 취재부 △노진환 (93국문) = 도서출판 진화 편집부 △임수현 (92사학) = 일본 유학중 △김일 (95사학) = 한국기아협회 △정우석 (94정외) = 권도 (주) 영업1부 △현창훈 (94경정) = 부산 전자 (주) 인사과 △김 훈 (94정보관리) = 신세계백화점 정보시스템실 △지동철 (94전산) = 대외경제신문 사회부 △최준호 (94정외) = 대한원 재학중 △유권준 (94지국) = 불교텔레비전 편성부 PD △조용성 (94행정) = 동부증권 (주) △김영진 (95경주경정) = 흥국생명 (주) △안정미 (92영문) = KAL스튜디오스 △이진영 (94사학) = 대한원 재학중 △이경애 (94지국) = 캡스튜디오 프 기자

(정리 = 사회부·자료제공 = 본사 동인회)

4.19등산대회코스



출력원
떠나는 북한산 나무그늘에서 먼 풍경과 오버랩되는 그날의 합성과 지성을 느끼며 내 손 맞잡은 친구 합작 웃음을 보며 그런 모습은 생각만 해도... 그런 생각들에 "이번주 토요일 뭐할래?"를 묻고 친구를 불러 모아 멋지고도 슬픈 산행을 즐겨야겠다.

동대신문사

이번주 토요일 뭐할래?

4.19기념 제26회 동국인 등산대회

1. 일시: 1995.4.15(토) 09:00~17:00
2. 장소: 북한산(4.19)기념탑→대동문→북한산장→위문→하루재→도선사
3. 대상: 전 동국인
4. 내용: 4.19기념 등산대회, 경기자랑 및 시상식
5. 구성
가. 4인1조 (학과, 동아리, 동문 등 자유 편성)
나. 학과 및 과의 학생의 각 50%이상 참가 학과에 한함
6. 시상
가. 최우수상(1조), 우수상(3조), 자연보호상(2조), 경기자랑상(5조)
7. 접수기간: 1995.4.3(월)~4.14(금)
8. 접수처: 학생과(본관3층, 전화200-3048), 산악부(중앙도서관 지하)
9. 조정회의: 1995.4.14(금) 오후 3시·중앙당
10. 기타: 1. 참가기념품을 제공하며, 점심 도시락은 개인 지참할 것.
2. 수유 전철역에서 4.19기념탑까지 학교버스로 운행 (8시10분부터 15분간격)

일시: 1995년 4월 7일 오후 5시
장소: 본사 주간실
참석자: 이명현(서울대 교수·교계위 상임위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장오현(본교 교수처장)
 이원부(본교 국제부장)
 박두권(본교 대학총협평가 연구위원)
사회: 송재운(본사 주간)
기초: 정재호·김소영(본사 피자사)

[illegible]

강요한 일련의 산업을 할 수 있을지, 이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집권파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 데 하나는 회계학과 집권이고, 또 하나는 경제학의 집권이다. 회계학 집권은 기존자료를 가지고 정권

물 기준으로 인문사회 자연계 예술
개발과정 차등등이 없는데 학생이
라고 하니까 왜냐하면 따라 교육이 뒤
러지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강조하
고 싶어 할 것은 정책학자 같은데
물론 두어야 하는데, 김세기를 대
한 관심사를 집중적으로 하니까 주
관 관심이 정책, 기획, 법률, 국
정 있는 데로 쏠렸고, 이렇기 때문
에 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복룡 김세기: 천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천재의 연장선 위에서
이해하려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사
학자: 한국사학자, 이념, 정치, 이

후자에 대한 신뢰, 불확실성 요구를 전제해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교수 시뮬 제형은 효율적이냐 또 효과적이냐 조지워치는 문제가 없다고 하신데 이것은 몇가지로 요약할

공유하는 원칙이나 정경까지도 우리
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오신 훈
제이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절대
나쁜 방향으로 쓸수있도록 해야합
니다.

경험의 존재에서는 유입식 모델
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에서 영
감을 받고, 한국적인 것에서 자기 것
을 창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 패턴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합
니다. 예를 들면 지금같이 외국과 지
식을 매우만 배울수고 그대로 적용
하는 카피와 자기 지식의 복사와
변형이 아니라, 창조적 변형이 되어
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국정부가 자기식
을 창조하는 데만 돈을 쓰는 자질로
바뀌고 있는 데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장영호 회계사는 다당성과 폭력
성이 본질적으로 조화를 이룬다
고 생각하고, 이런 사회에서 유입
식 모델이 아니라, 한국적인 것에서
영감을 받고, 한국적인 것에서 자기

시 밀리는 상황과 친화적이라는 인식을 잃어버리는 미국사회에 위기를 맞는다. 단국인 예로 결과를 놓고 봤을때 미국에서 노닐장 수성자가 더 많이 나왔을때는 미국식 노닐은 이시대의 변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구자

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대학의 문
명은 경영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
다.

교수, 사립, 사정을 하나의 복합
체로 보고, 이것을 어떻게 유망한
재도로 운영하느냐, 운영하는 주체
가 누구냐, 재원(資金)은 어디로
가느냐, 재원(資金)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고 이 책을 펴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역사를 간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잃아가는 재도를 소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도, 무리에 맞게 특화되고 보편화되어야 합니다.

최태환(서울대 교수) 박수진(박람회)

외교관이 나라를 방문에 대해 언급할 때는 몇몇의 일기에서 국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본체적으로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국적이라는 것은 모른다고 한다. 경험 많은 경우도, 지능 체제와 논리를 갖고 경험한다. 이런 다양한에서 경험이 있어야 결정인데 많이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미국 대표의 겸임방식을 우리나

대목 해서는 정기적으로 바뀌어 왔는데 문제거리로 지키되어 대화할수는 이러한 어떤 방법과도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시간들 내서 좋은 활동들을 할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배에게 듣는 학생기자시절

창간 45돌 1950-1995

◇6·10 집회—망원렌즈 분실사건

이한열군 장례식...1백만명 운집 시민가세 야간의 반독재 투쟁



◇박종철 고문치사 은폐사건은 개헌운동을 가열시켰다.

'기자'는 발바닥에 치질이 생길 때까지 뛰어야 한다며 지금도 발바닥의 무릎을 치질이라고 박박 우겨대는 이형은 술자리에서 그 시절을 되돌리는 날이면 입에서 침이 뿜는다. 당시 우리는 스스로 '사생아'라 자위하며 늘 무엇인가 목발라 했다. 멀리 보고 싶었고 높이 날고 싶어했으며 조금은 건방져 보이기가까진 우리는 아주 성능좋은 인생의 망원렌즈를 또 날카로운 마음의 칼을 갖고 싶어했다. 86년 인화후 7월 만에 열린 18대 총학생회 출범식날은 '학원자율화'가 무색할 정도로 서슴없이 뛰어든 전경들로인해 무너졌다. 무차별 유린당했던 그날의 대학은 그렇게 작고 허약할 수 없었다.

그후 경찰은 캠퍼스안을 제집 드나들듯하며 행사때마다 최루탄과 곤봉으로 저지했고 우리도 어느덧 그 당함에 한 부류가 됐다. 이때까지 의식의 층들로 방황하던 우리에게 '축제'는 이미 사라진지 오래였고 그 허함을 매개한 최루탄배를 속에서 숨이라는 것으로 길들였다. 때문에 우리는 86년 5월 축제대신 '해방동국제'를 치뤄야 했다. 7월중 일어난 입선배의 부상사고(경찰이 쓴 직격 최루탄에 의해 뇌손상을 당함)는 이미 훗날 이한열군의 죽음을 예고한 것이기도 했다. 또 아시안게임종류업을 하지 않았던 학교장청도 당국에 굴복, 휴교조치가 내려지자 교문밖에서 서성거려다 11월을 맞이했고 학생의 달인 '신길동 사건'으로 선배와 친구들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듬해는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사건에 이어 4.13호헌조치가 있자 이에 반대하는 각대학 교수들의 '시국성명'이 나왔고 본교에서도 교수 10여명의 시국성명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5월 18일에는 대학원생들까지 가세해 시국성명이 유행처럼 번져갔다.

그러나 지금도 신문사 암실벽에 웅크리고 붙어있는 한장의 장례식 사진은 당시 신문사의 진짜 망원렌즈를 잃게 만든 사건의 날이었다.

지 회 현

(해사프레스 기자·88년 분사 기획부장)

1960년 4월5일, 나는 당시 영문과 2학년생으로 '동대일보'학생기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했다. 1백여명도 넘는 응시자들 가운데서 이때 합격한 학생은 4명, 장문평(국2·현재는 문학평론가), 윤청광(영2), 송재은(철1·현재 모교교수·철박), 하중현(철1·현재 국도광고부사장)이었는데, 학생기자로 일하기 시작할지 열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4·19를 맞게 되었다.

4월19일 아침, 나에게도 동대데모대를 취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나는 노도와 같이 도심지로 진출하는 동대데모대를 따라 첫 취재에 나서게 되었다. 그러나 동대데모대가 서울시청 앞에 도착했을때, 거기에는 이미 다른대학의 데모대가 점령하고 있었다.

"이 한마디 외침이 울려 퍼지자마자 동대데모대는 귀신에 홀린 듯 무서운 기세로 권력의 상징, 경무대로 돌진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해무청 앞을 지나 경무대 정문을 눈앞에 두고 있는 효자동 전차종잡까지 육박해 들어갔다."

당시 경무대 쪽에는 몇대의 대형 소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종점에 서있는 전차가 있었다. 여기서 동대데모대는 멈춰선 전차를 후진시켜 경무대를 위협했고 투석전을 벌

◇기자로써 세가지 실패담(?)

계엄군, 캠퍼스 점령... '필동고지'로 표현

교수 휴강 1620시간기사...H교수 사표

여 바리케이트 대신 길을 막고 있던 소방차를 탈취, 후진시키면서 더욱 경무대를 위협했다. 이때 느닷없이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했고 효자동 일대는 순식간에 피바다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위급지경에 달했던 경무대의 경찰들이 밀려드는 동대데모대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던 것. 나는 이때 이미 학생기자로써의 취재와 사명감과 본분을 망각한채 "이승만 돌리자!"를 외쳐대는 성난 데모대의 한사람이 되어 있었다.

"우리도 무기를 가져야 한다"는 누군가의 외침에 따라 데모대는 무조건 무기과 습격에 나섰던 것이다. 그런데 성난 데모대가 무기고에 접근하려는 순간, 이번에는 더 엄청난 무차별 총격이 가해졌고, 여기서 나는 길바닥에 나뒹군채 경찰의 군화발에 등을 밟히고 손등에 찰과상을 입은채 구사일생으로 현장을 탈출했다. 취재에 나섰다가 데모대로 돌변해버린 첫 실패담이었다.

두번째 실패담은 당시 휴강이 잦

았던 대학의 현실을 바로잡고자 교무과의 서류를 훔쳐 제호를 바꾼 '동대신문'에 한학기 휴강통계를 폭로한 것이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제목을 '한학기 휴강 1620시간!'으로 뽑은것 같은데 아무튼 이 폭로기사로 학교안은 온통 발칵 뒤집혔고, 한학기에 강의 중단 한번도 하지 않은 채, 월급과 보너스를 받아채기고 있던 유명교수 H모씨가 사표를 내고 동대를 떠났는데, 그 덕분에 나는 '문제의 인물'로 찍히게 되었고 퇴학·제적까지 거론되었으니 이것이 학생기자의 두번째 실패담(?)이었다.

그리고 6.3사태때 동대캠퍼스는 군인들이 점령했고 '동대신문'도 어김없이 계엄군의 점령을 받아야 했는데, 그때 나는 '필동고지'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의 캠퍼스가 군인들에게 점령당했음을 학우들에게 알리는 한편, 계엄령하에 학교를 방문한 계엄사령관이 총학장을 몰아내고 폭언과 협박을 자행한 사실을 집어 '동대신문'에 폭로했다.

◇제853.4호 탄생

기관원에 의해 4·19특집호 배포 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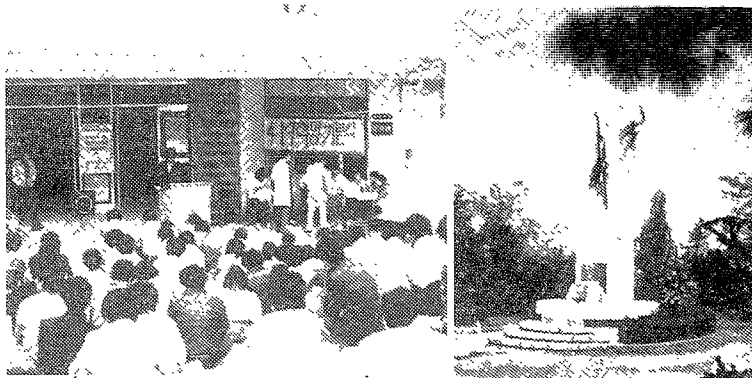
◇배포중지된 419특집 853호를 인정키위해 853.4호로 발행했다.

어느 시대이건 대학신문은 그 시대 상황속에서 진보적이었고 그 진보적 성향 때문에 기성으로부터 폭대 또는 탄압을 받았다.

80년대 초반의 동대신문 제작상황은 지금의 그것과 사뭇달랐다. 먼저 국가정보기관원들이 대학관한편에 사무실을 갖고있었고 학생대표로는 호국단이라는 유신정권의 신들이 존재했다. 그리고 시위가 벌어지면 대규모의 공권력이 10분이내에 학내에 진입했기에 시위를 한 시간이상 끌면 대학간에 화제가 될 정도였고 불상할 나무는 시위 주도자들이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나뭇가지가 쇄철망으로 쌓여있었

다.(그나마 83년에는 나무전체를 베어버렸다.) 동대신문도 이러한 정서속에서 시위기사는 당연히 못했고(쓰다해도 조판과정에서 빠지고) '4.19'나 5.16, 삼청교육대, 군사정권'이라는 단어를 신문에 담기에는 소위 투쟁이라는 것이 필요했다. 이런 정서속에서 동대신문에 웃지못할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853.4호라는 이상한 지명으로 나온 83년 4.19기념호 다음신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4.19특집호에서 시작된다. 대학신문에서의 마지막 4.19를 새롭게 꾸미기로한 23기들은 사전나기 한달전에 먼저 당시로서는 엄두도 못낼 4.19학술상을 제정



◇필자는 4·19취재때가 데모대로 돌변했다. 우측 사진은 4.19 동우담

'계엄사령관 일행, 공갈협박차 내교?란 제목하에 무지막직한 래업사령관의 폭언내용을 폭로했으니, 그날로 신문은 모조리 압수되어 화형을 당하는 비극을 맞았고, 정보부, 치안국, 시경, 중부서, 보안대의 무서운 조사와 심문과 협박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동대신문'에서의 내 마지막 실패담이 되어 나를 동대에서 쫓아냈으니, 그 한은 아직도 풀길이 없다.

참고로, 그당시 계엄사령관이 총장실에서 내뱉은 폭언과 망언은 이러했다.

—폭박한 교수는 국회의원 해먹고 병신같은 것들만 대학에 남아있으니 학생들이 맘을 들을게 뭐야!
—이 학교 남학생들이 저 남산 술숙으로 여학생을 끌고가서 강간

하지 않는것은 그것이 병신이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기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칙을 엄하게 정해서 데모하면 퇴학시켜라. '개 돼지 같은 놈들, 또 데모하면 총살을 시킬 것이다!'

이 분분터진 내용을 동대신문에 폭로했으나 불타버렸고, 일간신문사에도 알렸으나 묵살되었다. 당시 고려대 교수였던 시인 조지훈선배가 동아일보'서사여화'에 이 내용을 칼럼으로 썼고, 모교의 서경수교수가 이 분분터지는 내용을 '사상계'에 수필로 썼다가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곤욕을 당했는데 탈모교수 서교수도 세상을 뜨셨으니, 그 신세 값을 길도 없다.

윤 청 광

(방송작가·62년 분사 편집장)

실로 불려간 필자는 이미 와 있는 기관원에서 빨간줄이 20여군데가 넘게 그려진 신문 한 부를 보게 되고 도대체 사실까지 이런식으로 나오는 대학신문은 처음본다는 편견과 함께 신문사부장만이 자퇴서를 쓰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을 들어야했다. 그리고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한 학교에서도 교수회의까지 열어 대책을 숙의했다. 필자는 동료나 후배기자들에게 의견한 척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피부로 느끼고 당시 기관원들의 파위를 조금은 알고 있던터라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약간의 겁을 먹은채 불안스럽게 지켜 볼 수 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신문이 배포금지됐다는 소식이 학내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학우들이 신문사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와 기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일부학생은 독재정권의 이같은 횡포에 과감히 맞서겠다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했다. 여기에 오전회의때만해도 방관자세를 취하던 교수님들도 회의석상에서 일개 기관원 하나가 대학을 이렇게 흔들어서야 되겠냐며 흥분했고 주간교수였던 오홍석교수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면 비난의 소리에 강력히 대치하며 주간직을 던지며 투쟁의지를 보여냈다. 마침내 문제를 삼았던 기관원이 대세에 밀려 특집호는 없었던 것으로 하지는 조건을 내세우

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독재정권 눈치를 봐야했던 대학측에서도 이 조건을 받아들여 이미 어디론가 실려간 신문을 찾지 않고 기자들도 빼돌린 천여부의 신문이 복사의 복사를 거지면서 학우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만족감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문제는 그 다음호에서 일어났다. 학교측에서는 전호신문은 없던 일이기 때문에 이번호 신문 호수는 전호신문 호수를 써야한다고 주장했고 기자들의 지난 신문은 많이 배포는 안했지만 호수로는 인정해야하고 따라서 이번 신문은 당연히 그 다음 호수가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부임한 주간교수와 기자들간의 대립은 계속됐고 결국은 누구의 제안인지는 잘 기억 나지 않지만 853.4호라는 산물이 탄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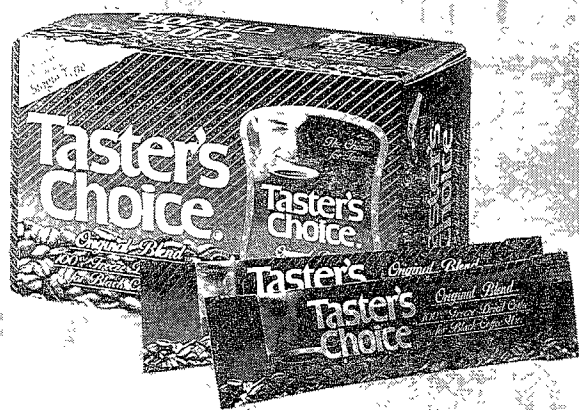
10여년이 지난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자꾸 웃음이 나온다. 얼마전에 지인을 통해 그때 강제로 신문배포를 막았던 기관원은 지금 부이사관이라는 고위직에 올라 그 날의 무용담을 후배들에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쓴 웃음을 지었던 필자가 지금 그때의 안타까워해야할 당시 상황을 자연스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남 선

(불교방송기자·83년 분사 편집장)

우리가 있는 곳엔 언제나

"커피? 난 블랙! 왜냐구?"
향이 참 좋구 설탕두 없어. 또 느끼하지도 않구 개운해.
괜히 멋있는 거 같잖아?
그래서 내게 딱 맞는 커피는 싱글.
내가 있는 곳엔 언제나 테이스터스 초이스 싱글이야.
블랙이라 좋구, 간편해서 더 좋은 것 같아.
난 아무 커피나 마시지 않는다구!



싱글이랑 차린하어 작품선택 올리브게

설문

문화·여론면 기사 관심도 높아져 분산이전—교직원 70.4%찬성 학생 45%반대 대학발전 위해 면학풍토 쇄신 시설확충 필요

동대신문 관심도와 독자들의 요구
'동대신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는 기사'는 △학내보도기사(411명 45.6%) △문화기사(123명 13.7%) △여론면(122명 13.5%) △사설 및 칼럼(93명 9.3%) 순으로 독자의 45.6%가 취재면 기사를 중요하게 읽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비중을 두어야 할 부분'은 정치사회면(80명 8.9%)을 제외하고 △학내기회(265명 29.4%) △문화기사(222명 24.6%) △학술기사(163명 18.1%) △여론(144명 16.0%) 순으로 나타났다 고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대학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묻는 문항에서도 △학내소식 정보 전달(606명 56.2%) △여론조정(163명 18.1%) △교양지식전달(107명 11.9%) △비판(60명 6.7%) 순으로 나타나 있으며 사회현상운동으로서의 대학신문의 역할이 강조됐던 90년 전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지 관심도 설문에서는 △학내 보도기사를 가장 관심있게 읽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더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학내기회이고 △학내 소식 정보 전달로서의 대학신문 기능이 중요하다고 응답자들은 보고 있다. 또 문화면과 여론면제면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으며 '충면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도 있었다.

한편, 교직원들은 대학신문의 기능으로 정보전달(교수 49.5%, 직원 62.4%)과 비판(교수 25.8%, 직원 15.1%)기능을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

다. 또 교수 학생들은 학내기회(24.0%)와 문화·예술(24.0%), 독자참여(22.1%)에 가장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제3캠퍼스 설립과 학과조정
현재 정점화된 '제3캠퍼스 설립과 분산이전'에 대한 설문결과를 교직원과 학생 간의 입장차가 컸다. 또 분산이전 대상 단과대 학생과 비적용 단과대 학생 간의 입장도 달랐다. 교수 학생들의 반대입장 비율이 서울캠퍼스보다 높았다.

먼저 교수의 경우 61명(65.6%)이 찬성, 10명(10.8%)이 반대하고 있다. 직원의 경우도 찬성 70명(75.3%), 반대 5명(5.4%)으로 322명(45.0%)이 반대, 202명(28.6%)이 찬성을 보이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과 달랐다. 교직원의 찬성이유는 △서울캠퍼스 과포화 상태 해결(81명 61.8%) △실험 위주 단과대 특성활용(33명 25.2%) △지역발전에 기여(6명 3.2%) 순이었다. 학생들의 반대이유는 △캠퍼스간 이질감 심화 우려(11명 34.2%) △이전 학과의 위상 격하(103명 32.0%) △분산이전은 전체 이전의 가능성 포함(71명 21%) 순으로 나타났다. 소수의견으로는 '통학 등 캠퍼스 이전에 따른 등·하교 문제' '지방대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등이 있었다.

캠퍼스 설립과 분산이전 문제에 대해 해당 단과대인 이·공대 생명 자연과학대 예술대 학생들과 그의 서울캠퍼스 학생들과의 입장차이를

보면, 해당 단과대 학생들은 61.9%(91명)가 반대, 23.1%(34명)가 찬성하는 반면 비적용 단과대 학생은 38.4% 찬성(96명), 30.4% 반대(76명)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주캠퍼스 학생들은 155명(48.9%)이 반대, 72명(22.7%)이 찬성하고 있다.

학과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도 교직원과 학생간의 의견차를 보이는데 교직원은 72.0%(134명)이 찬성하는 반면 학생은 54.7%(391명)가 반대하고 있다. 교직원의 찬성 이유는 △전공선택 폭의 확대(87명 64.9%) △대학형성의 효율성 극대화(25명 13.4%) 순이며 학생의 반대이유는 △학과전선정결(244명 34.1%) △과소속감 결여(109명 15.2%) 순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학과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공통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재의 학과조정 논의가 △단순한 대학종합평가에 대비방안으로 형식적인 면에 치중(307명 34.1%)하고 있으며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중(294명 32.6%)이고 △학과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부재(189명 21.0%)하다는 순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현재 진행중인 학과조정 논의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응답자들은 보고 있다.

개별질문—교수
교수들은 활발한 연구활동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연구비 보조(51명 54.8%) △연구시설 설비(32명

34.4%) △국내의 학술단체와의 교류(6명 6.5%)를 꼽고 있으며, △학내에 대한 탐구(83명 89.3%) △해박한 지적능력(6명 6.5%)이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한편 현 교수회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38명 40.9%) △제 역할을 하고 있다(18명 19.6%) △잘 모르겠다(17명 18.7%) 순으로 나타났다.

개별질문—직원
학내 직원의 자위에 대한 직원들의 응답은 긍정적(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43명 46.2%)이다. 반면 '보조역할' '형식적 주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각각 16.1%(15명)나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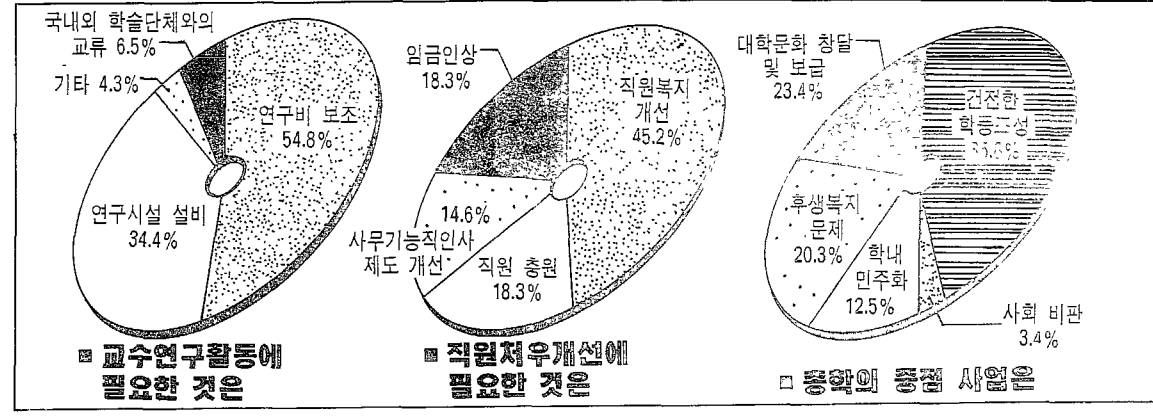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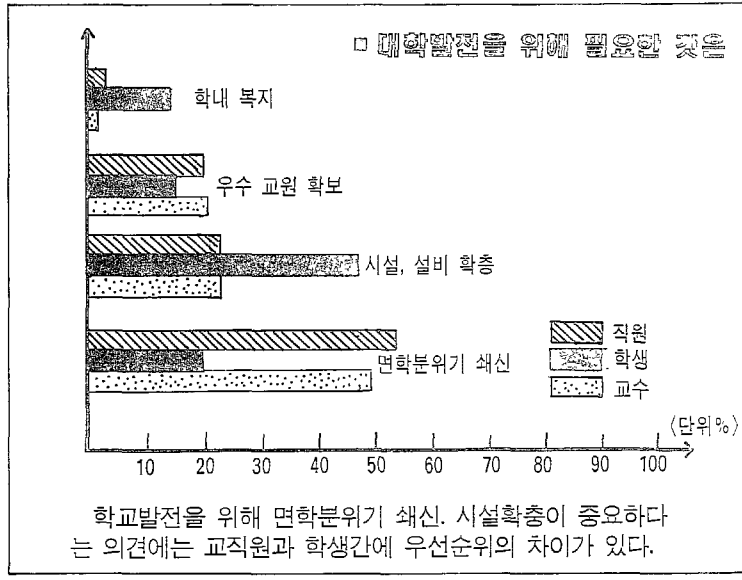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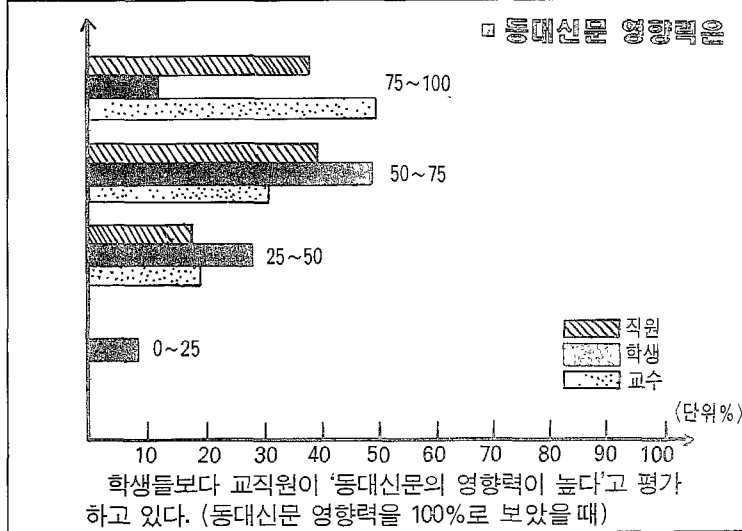
직원 처우개선에 필요한 것으로는 △직원 복지개선(42명 45.2%) △직원충원·임금인상(각각 17명 18.3%) △명예퇴직·사무기능직 제도 개선(17명 1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원노조에 대한 평가는 '제 역할을 하고 있다'가 46.2%(43명)이었으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22명 23.7%)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13명 14.0%)는 부정적인 시각이 37.7%나 됐다.

개별질문—학생
학생들이 대학생활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인간관계(231명 32.3%) △학업(196명 27.5%) △취업(193명 27.0%) △정치·사회(11명 1.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공분야의 능력구비(353

명 49.4%) △끊임없는 연구(196명 27.4%) △사제간의 정(93명 13.0%) △공정한 학점평가(45명 6.3%)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총학생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으로 △간접한 학풍조성(256명 35.8%) △대학문화 창달 및 보급(167명 23.4%) △후생 복지 문제(145명 20.3%) △학내민주화(89명 12.5%) △사회비판(24명 3.4%)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0년 이후 학생들의 시각이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대신문의 기능으로 학내소식 전달과 여론조정, 교양지식전달을 꼽는 것이나 총학의 학내 민주화와 사회비판 사업보다 간접한 학풍조성, 대학문화 보급 등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보다 교직원들이 본지의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90년 이후 학생들의 시각이 변화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동대신문의 기능으로 학내소식 전달과 여론조정, 교양지식전달을 꼽는 것이나 총학의 학내 민주화와 사회비판 사업보다 간접한 학풍조성, 대학문화 보급 등에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보다 교직원들이 본지의 영향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설문문항

(동대신문 관심도)

- 동대신문에서 가장 관심있게 읽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① 학내 보도기사 ② 학술기사 ③ 사회기사 ④ 문화기사 ⑤ 여론(통·광·장) ⑥ 사설 및 칼럼
- 더 비중있게 다뤄야 하는 부분은 어느부분입니까?
① 학내기회 ② 학술, 논문 ③ 정치, 사회 ④ 문화, 예술 ⑤ 독자참여
- 여론수렴과 영향력에 대해 점수를 매긴다면?
4. 대학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내소식 정보 전달 ② 여론조정 ③

교양지식전달 ④ 비판 ⑤ 사회변혁 운동 (학내 문제)

- 대학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면학분위기 쇄신 ② 시설, 설비확충 ③ 우수교원 확보 ④ 학내복지
- 분교 제3캠퍼스(자연과학캠퍼스)설립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2-1로) ② 그저 그렇다 ③ 반대한다(2-2로) ④ 모르겠다
- 2-1. 찬성한다면 그 이유는?
① 서울캠퍼스의 과포화된 공간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② 실험 위주인 단과대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다. ③ 지역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④ 기타
- 2-2.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① 캠퍼스간 이질감이 깊어진다. ② 이전 학과의 위상이 떨어진다. ③ 분산이전 이후 다

- 단과대를 포함한 전체이전의 가능성이 있다. ④ 기타
3. 각 대학에서 추진중인 학과조정(학과통폐합)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필요하다(3-1로) ② 필요하지 않다(3-2로) ③ 잘 모르겠다
- 3-1.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① 전공 선택분야가 넓어진다. ② 대학합성상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 ③ 사회적 추세이다. ④ 기타
- 3-2.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① 학과의 전문성을 살릴 수 없다. ② 학생들의 분산으로 인해 과에 대한 소속감이 결여된다. ③ 통합이후 사회진출 선택의 연계가 끊기게 된다. ④ 기타
4. 현재 본교에서 진행중인 학과조정(학과통폐합)상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논의없이 진행된 것이다. ② 학과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③ 단순히 대학종합평가에 대비방안으로 형식적인 면에 치중하고 있다. ④ 기타

개별질문

(교수)

- 활발한 연구활동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연구비 보조 ② 연구시설 설비 ③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④ 기타
-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학내에 대한 탐구 ② 사제간의 정 ③ 해박한 지적 능력 ④ 사회에 대한 관심
- 현 교수회에 대해 평가한다면?
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②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

- 을 하고 있다. ③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 ④ 잘 모르겠다.

- 하고 있다. ⑤ 제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 ① 잘 모르겠다.

(학생)

- 대학 3주체의 하나로서 직원의 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학교 행정운영상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② 학생, 교수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다. ③ 형식적인 주체일 뿐이다. ④ 잘 모르겠다.
- 직원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직원 복지개선 ② 직원 충원 ③ 명예퇴직제도, 사무기능직인사제도 개선 ④ 임금인상
- 현 직원노조에 대한 제평가를 한다면?
①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 수용,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② 소수집단의 이익을 대변

1. 대학생활중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은 어느부분입니까?
① 학업 ② 인간 관계 ③ 취업 ④ 정치, 사회 ⑤ 취미활동 ⑥ 기타
2. 교수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전공분야의 능력구비 ② 끊임없는 연구 ③ 공정한 학점평가 ④ 사제간의 정 ⑤ 적극적인 사회활동
3. 현재 총학생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간접한 학풍조성 ② 사회 비판 ③ 학내 민주화 ④ 후생복지 문제 ⑤ 대학문화 창달 및 보급

SKC 플로피디스크

에러는 없다!

한치의 에러도 용납될 수 없는 對테러 특공대, 그 완벽함은 SKC 플로피디스크와 같습니다. 에러율 0%를 실현하는 SKC가 그 품질에 대한 자신감으로 획기적인 고객서비스를 실시합니다.

SKC 플로피디스크—10배 보상제도

만약 SKC 브랜드 제품에 제조상의 문제가 있다면 10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서비스

- 데이터 복원 서비스(타사제품 포함)
- 에러 원인 분석 서비스(타사제품 포함)
- F/D상식책자 무료제공

* 서비스 문의처 : 콜로버서비스 080-023-6263

● 실시간 '95년 1월 1일~12월 31일
● 10배 보상제도는 플로피디스크에 한정되며 저장된 Data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3.5" 플로피디스크는 모두 Pre-Format 되어 있습니다.

SKC 주식회사 SKC
서울특별시 중구 동지로271 199-15
SKC 영업 전화 02-756-5151, 5161

SUNKYONG 鮮京 그룹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
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 770-2057
하이텔 (ID: 2603491, press11)

“동대 체육부를 살리자”

재정지원등 관심 필요

‘인입골 호랑이’와 ‘신촌골 독수리’의 혈투는 올해도 변함없이 농구 코트에서 재연되었다. 수 많은 팬들과 양 대학 응원단의 필사적인 응원, 몸을 아끼지 않고 경기에 열중하는 선수들을 보고 있노라면 농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흥분해 빠져들기에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양 대학의 농구경기는 재미가 있다.

매년 벌어지는 대학대항전이나, 아마대항전 토너먼트를 보면, 웬만한 종목에 우리 동국대가 항상 끼어있기는 하다. 그러나 토너먼트에서 두세줄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동국대는 지워지고 없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학교측의 지원금 삭감과 신인 선수 스카우트 정책의 부재로 인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지만, 동국대 체육부 성격의 저조이유를 단지 이런 행정상의 이유만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는 것일까?

나는 학교 당국의 무성의와, 우리 동국대 재학생들의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커다란 두가지 원인

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연·고대의 겨우, 졸업한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체육부 후원회가 매년 막대한 지원금을 각 체육부에 쏟아붓고 있다. 여기서는 학교 당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연·고대의 총장들이 학교발전기금을 얻으려 각 대기업을 방문하여 큰 성과를 본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재학생들은 자기 학교 체육부에 큰 기대와 자존심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크게 범대학적으로 소속대학의 동질감과 자부심으로써 이어지고 있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우리도 지지부진하게 서로를 탓하지 말고, 각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우리 동국대 체육부를 연·고대 체육부에 못지 않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잡실 학생체육관에서 동국대 농구부를 꼭이 더져라 응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본다.

손 승 표
(경상대 무역학과)

경주캠 중앙위원 단식 돌입

등협무산...학우 기대 와해

지난 10일부터 경주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간부들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지금까지의 등협무협성과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결과로 보는것이 타당할 이번 사태는 학교 당국의 무성의한 태도와 경주캠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등협금 지원납부를 시작으로 전진대회등을 통해 등협금 부당 인상과 경주투자 확대 예산에 대한 학생대표 참여 등에 대한 학우들의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한학기의 3분의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협상 자체가 무산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1만 학우들의 기대와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졌다는 문제보다도 앞으로 있을 경주지치권 확보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

현재 전국의 대학들은 앞으로 있을 대학시장개방을 준비하기 위한 학사개편과 투자, 교육시설 확충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우리 캠퍼스의 실정은 어떠한가. 대학평가인정제를 앞두고도 아무

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법정교수 총원도 안된 상태로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만으로 학과통폐합을 한다니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러한 졸속 행정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고 여기에 아무런 대처 없이 끌려 다니는, 그래서 우리의 권리마저 잃어버리기 전에 1만학우 모두가 함께 투쟁해야 할 것이다.

자치권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투쟁없이 얻어지는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자. 지금 단식농성에 들어간 중앙위원들은 학생회나 자치기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 아니다. 경주 자치권을 쟁취하고 미래 동국의 멋진한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바로 우리의 모습을 잊지 말고 1만 동국학우들의 학원 자주화 열기를 모아 우리의 대표자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재단과 학교당국은 성실한 자세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선 영
(상경대 회계학과)

투고서

당당한 발언을 기다리며

강 철 규 (상경대 관경과)

이땅위에 어느하루 어느날
그렇지 않은 때 얼마일까마는
4월 피의 꽃 지천으로 피어나는
본노로 절규로
그리움으로 눈물짓는 봄의 길머리
그 4월입니다.

그렇듯 핑계까지 꾸미고선
버리지않는 칼날로 제 심장만 쪼고 있군요
남은게 없었구요
그때의 죽음이나, 그들의 피가 무슨 의미나 구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구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삶을 체화하고자 하는 시간들은

아직도 당신은 투쟁타령인가요
민중이니 혁명이니 역사 어쩌구
단결이니 해방이니 노동자 어쩌구
야, 그래요
옛-날 그런말들이 유행하던 시절
최루탄에 살이 타들어가고
눈물 콧물이 범벅지고 터지고 깨지고 끌려가고
제 목숨에 불을 지르고도
그리고는 다시 어깨등뒤에 깃발 새우며
아침을 희망이라 믿던...
그게 다시 유행이라도 할거려요

이제 무슨 소용 있나구요
당신은 한번의 싸움도 없이 패배한 채
허무를 먼저 배워
진보를 위장한 진부함에 머물러
겉멋지게 돌아설 변명으로 너절할 뿐
아시잖아요 지금도 싸움중임을
보고 있잖아요

일 님으라
부끄러운 침묵 보이지 않는 말들은
차라리 일 님으라

입 님으라
아직도 당신은 겨울안에 갇혀 있군요
무기력과 허무를 강요하는 세상이라

* '제발 이럴때 누가
당당하게 발언해 줄 사람 있다면'

* 속:김형수작 김남주의의 유고시집발문 가운데에서

통/문/칼/럼 진짜요령

‘상식의 허’가 준 깨달음

고교시절 나는 어쩌다가 추리 소설에 깊이 맛을 들이게 되었다. 먼저 추리소설의 고전이라 할 수 있는 코난도일과 모리스 르블랑과 아가사 크리스티 등에 빠져들자 공부때문에 짧은 밤은 더욱 짧아지게 되었고, 이것이 포사이나 앨러리 퀸등으로 발전할 즈음에는 학교성적에도 그 여파가 상당히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작가와의 두뇌전쟁, 보물찾기의 스릴과는 사뭇 다른 진짜 스릴, 교묘히 감추어진 트릭의 틀바꾸기를 발견하고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보는 일, 내가 흡츠가 되고 뽀로로 탐정·브라운 신부가 되어 영진 실타래를 풀어보는 재미.

정말 그랬다. 추리소설은 내가 단순한 독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한가운데 직접 들어가 참여하고 당사자가 되는 것에 묘미가 있었던 것이다.

그 많은 추리소설중에서도 ‘잃어버린 편지’라는 단편은 지금도 자주 떠오른다. 읽은지 30년이상 되는터라 정확한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강 이런내용.

매우 중요한 편지가 어떤 방에 감춰져 있는건 확실한데 아무리 속속들이 뒤져도 찾을 수 없었다.

도대체 그 편지는 어디에 감추어진 것일까. 온갖 지혜를 짜내어봐도 행방이 묘연했던 그 편지.

그 답은 참으로 싱거웠다. 허무

하기까지 했다.

편지찾이에 그냥 꽃혀있었던 것이므로 허술한 다른 편지봉투에 넣어져 보관됐어 편지찾이에 있는 그 편지를 찾느라 벽틈, 시트, 책상의 비밀서랍들을 샅샅이 뒤졌던 것이 아니던가. 편지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가장 평범한 장소가 상식의 허를 찌른 셈이 되었다.

세상일도 이와 비슷할거라 생각한다.

요즘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생각도 많이하고 머리도 많이 쓰기 마련이다. 그러나 자신만 이렇다면 훨씬 돋보일수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이 머리를 요리조리 굴리게 되니까 오히려 일이나 대인관계가 배배 꼬이기 쉬운 법이다.

지식이 도리어 걸림돌이 되고 지혜가 자신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내 경우에는 체질적으로 재기 발랄, 권모술수와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었다. 곧이곧대로 우직하게 밀어 붙이는것, 당장은 손해가 나더라도 있는 그대로 사는것, 맞다고 여긴 그대로 그냥 참고 버티는 것—

그런 특성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남보다 크게 앞선건 아닐지 모르나 그대



오 기 록

(LG애드 이사·응용생물 71졸)

도 떨어지지지는 않았다고 자부한다. 난 22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요령보치는 경쟁자들이 나보다 훨씬 앞장서 나가는것을 여러번 바라보았고, 얼마후 그들이 이런 저런 형태로 낙오하는것을 지켜보았다.

그렇다. 내 인생과 사회생활의 요령을 굳이 말한다면 요령을 부리지 않는것이 유일한 요령이었던 것이다.

중요한 편지일수록 평범한 곳에 두자. 특히 머리로써 모순걸 해결하려는 요즘 세대에서 굳건히 자기 위치를 지키려면 꾸밈없는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진짜 요령은 굳이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더욱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곧 사회에 나갈 재학생들이여, 또는 막 사회에 들어선 후 배동문들이여,

알파한 요령을 부리지 말고 곧직하게 살자.
곧이곧대로 우직하게 세상을 살아보자.

■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발행지연, 신문에 대한 믿음 상실

사진부분 지면 할애 늘렸으면

동대신문을 항상 기다리고, 관심 갖고 지켜보는 독자인 한사람으로서 근간에 제일 아쉬운 것은 발행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생인 기자들이 공부하면서 신문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수요일자의 신문이 혹은 목요일, 혹은 금요일에 발행된다는 것은 독자의 신문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차후에 신문 발행일을 월요일자로 바꾸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지난호(제1171호) 동대신문을 보면서 특히 아쉬웠던 것은 이 신문을 만든 사람들이 독자들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알수 없을 정도로 각면의 기사로 가득차 전체적으로 답답하고 산만한 느낌을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기사량이 넘

쳐나거나 어쩔수 없이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이 피상적으로 사실을 전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다. 특히, 1면의 ‘일본대정대 유학생 선발’ 기사는 유학생을 선발한다면 선제, 어떠한 방법으로 선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7면의 ‘총동창회비 진상규명’ 기사도 무슨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생략되어 궁금증을 갈수록 키웠다.

마지막으로 동대신문을 보면서 항상 가졌던 생각이지만 전반적으로 사진에 지면을 할애하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음과 하는 생각이다. 몇줄의 기사못지 않게 한장의 사진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뿐 아니라, 전경서적을 읽는 것과 같은 피로감이 아닌 그림이나 만화책을 보는 즐거움

으로 신문을 대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수시로 컬러풀한 사진을 게재하거나, 학기초등 기사 거리가 많을 때에는 증편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거듭나는 동대신문을 기대한다.

박 상 관

(교무처 학술부·본사 모니터)

‘뽕골만팔’ 좋은 반응유지기대 오자실수 없길

지난호(제1171호) 동대신문은 등협금에 관한 기사가 주내용을 이루었다. 1면을 비롯해 7면 학내 보도면에 이르기까지.

주요 관심사인 만큼 약적인 면에서도 상당 부분의 지면을 차지했다. 그런 반면, 등협금 차등제·예고제 관련기사는 그 중요성이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상에 있어 다소 빈약함을 보이고 있다.

7면 경주보도면 역시 등협금에 관한 기사가 주를 이루었는데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3쪽지의 작은 기사보다는 일괄적으로 집록시킨 하나의 충실한 기사가 오히려 낯지 않을까.

또한 지난호 동대신문은 여기저기서 오자를 볼 수 있었다. 신문의 영향력을 잘 안다면 오자라는 실수를 가버이 넘길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다.

‘1’ 다르고 ‘1’ 다르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을 깊이 새겨 보며 정정기사를 쓰는 번거로움보다는 조금의 세심한 주의가 절실하다고 본다.

오자에 좀 더 신경쓰며 새로 모습을 나타낸 동인칼럼 ‘뽕골만 팔’이 좋은 반응을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

김 정 현

(불교문화대 불교학과·본사 모니터)

목먹골

☐동대신문 창간45주년 축하 합니다

■ 어느날 모교수님이 수업시간에 이런 질문을 던졌다.
“만약 한 국가에 언론이 없다면 ...?”

요즘 ‘제 4의 권력’이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언론역사를 되짚어 볼 때 그 힘이 오히려 사회의 ‘악’으로 작용할 때가 많아 대다수가 언론에 관한 기억이 안 좋은 게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자.
“만약 동대에 동대신문이 없다면 ...?”

정말 기분이 좋다. 이제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기 때문에, 동대신문은 남한의 부끄러운 언론역사와는 달리 ‘학원자주’와 ‘학내 민주화’, 또한, 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로서 자랑스럽게 달려왔다. 그리고 당당하게 이번 45번째 생일을 축하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사회는 동대신문의 ‘바른 소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동대신문사는 이번 생일을 맞아 지난 45년의 ‘고행’을 서로서로 치하하고, 이후 더욱 힘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다.

동대신문 창간 4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전대기원 서울지역 남부지부 지부장 송실대학신문사 편집국장 이창원

■창간 축하합니다. 단순한 정보·소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들의 여론 수렴과 학내문제에 대해 유기적인 관계형성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불교적인 내용보다는 대학생이 보편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다뤄주세요.

■축하드려요. 많은 홍보를 통해 학생독자층을 넓혔으면 해요.

■창간 45돌 축하해요. 여론 조성에 좀 더 신경썼으면 좋겠고 냉철한 비판의식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신문 배부대를 더 늘려 주세요.

■좀 더 열심히 하시구요. 좋은 신문이 되길...

■축하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기획기사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동대신문은 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사실을 잊지마시구요. 열심히 하세요. 창간 45주년 축하합니다.

■45돌. 나이를 많이도 먹었네요. 기자여러분 수고하셨구요, 45돌 맞이하게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동대신문의 창간45주년을 무진장 축하하고, 45년간 신문 만드느라 수고하셨고, 45년간 뛰어나시라 올린 그 땀방울과 부르른 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50년, 75년...을 향해 열심히 꾸준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축하하구요. 학내의 행정을 좀 더 깊이있게 전달해 줬으면 해요.

■더 많은 보도사진 부탁해요.

■창간 45년. 축하해요. 여론반영에 충실해 주시고 열심히 하세요.

■동대신문 창간 45돌 축하하구요. 더욱 더 독자에게 사랑받는 신문되세요.

☐축하합니다

■4월 9일 ‘우정의 무대’에 ‘91기’가 전기주 선생님의 웃는 모습이 잠깐 나왔나? 축하합니다. 매스컴 타서

—젊은 새이웃

■동대신문의 창간 45주년을 더 불어 하루 후 (13일)인 정승환의 출생 24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요.

—기공 S-H

통 / 약 / 광 / 장

■먼저 ‘빛들이’창립제 축하하고 ‘동대신문’창간 45주년도 축하!

—빛’94

■종범오빠의 스무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컴공 95일동

■혁이의 25번째 생일을 축하하며 복학생들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호노

■일문과 귀엽둥이 성민아! 너의 스무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사랑하는 내가

■떡진선배! 26번째 생일 축하드려요.(창가는 언제 가실라나?)

—Hee

☐축하합니다

■법정대 학생회에서 오늘 체육대회를 열지요?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법정인을 모두 사랑하는 H-J

■우리 친구 경우의 스물 첫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국경 현애

■정보산입 (아) 95학번 강주익군의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4월

온방골

■강상훈아! 4월4일 오늘, 드디어 민간인이 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학교 열심히 다녀라.

—Lovely KIM

■사랑스러운 우리 은희 생일이 9월 임니다. 축하해 주세요.

—지영이와 경미가

☐수고하셨습니다

■동국음악회의 미니 콘서트를 치루느라 수고하신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를 수고하셨습니다.

—동음 15기 포콘이

■새벽을 여는 사람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

—금연규류부장

■불교문화대학생회 집행님들!! 남상성지 순례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즐거웠어요.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참가한 예쁜 새내기가

☐알립니다

■Tae-gu H고(협고), K여고(경일고) 동문화 발리 줌 하자

—K학과 모교인

■알립니다! 솔메리아 볼소풍이 15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전원참석하시길...

—솔메리아

■자신들의 창작품을 가지고 2만 이 넘는 관객앞에서 공연해 본 동

아리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새내기들을 무진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방돌짓

☐그리고...

■승형아! 항상 형네집에서 재워 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항상 심심하지 않게 멋진 소리도 내 주셔서 고마워요.

—빈크

■시말'95학번 수습위원들의 힘찬 활동을 기대합니다.

—14기 O-B 일동

■등협금 투쟁 승리를 위해 혼신을 다한 단식농성에 임하고 있는 학생 대표자님들께 격려를 보냅니다. Fighting!

—충여학생회 집행부 일동

■왜 일요일에는 참고도서실, 일반도서실 문을 열지 않는 겁니까? 열어주세요.

—?

■처음 본 동국대의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녹야원이...

—송실대 학우가

■영관, 정기, 진호 배를 비우고 더 큰 것을 채우자!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기억해 주요.

—한외대 학우들이

■Rainbow 잘 해 보자. 사랑한다!

—명철

◆신입생 독후감 최우수상 당선작 — ‘장자’를 읽고

생각·인간상식에서 벗어나려는 욕구 생겨
‘장자’, 인위적 조작없는 ‘자연스러움’역설

‘장자’를 읽으면서 내 머릿속을 줄곧 떠나지 않은 생각 하나가 있다. ‘생각속에서 벗어나는 일, 인간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이 그것이다. 아무런 의심없이 또는 남들이 하는데로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판단해 왔고 그에 맞춰 삶을 꾸려왔던 내 태도를 그 뿌리부터 뒤집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긴 것이다. ‘장자’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결국 자유로와 질 것을 권유한 것이다.

‘장자’는 내편과 외편 그리고 잡편의 총 3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종의 대화록인 점은 ‘논어’와 비슷하지만, 공자 한 사람이 이야기를 이끄는 ‘논어’와는 달리 많은 중심인물이 편마다 등장하면서 대화가 전개된다. ‘장자’의 이야기에서는 결코 ‘이것이 진실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무뎈한 가운데 이야기를 읽다보면 ‘아, 이것이 진실이구나’하고 눈치챌 수 있도록 쉽게 이야기한다. 어린이가 동화를 읽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알맹이를 발견할 수 있지만, 논리에 길들여진 이성을 앞세워 장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장자의 진실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장자의 이야기는 항상 새로이 생각하고 상상속에서 자유로와지는 지혜를 준다. ‘장자’는 한 세상 사는 일은 여관에 한번 드는 일과 같다고 말한다.

인생이란 하나의 여정이며, 이 세상은 그 여정중에 묵어가는 여인숙인 것이다. 그 여인숙 곧 ‘장자’에는 모두 철인들이 묵고 있어서 우리가 그 인물들을 직접 만나도록 해 주고 그 인물들에 젖어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주 많다. 소재도 다양하고

동장인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러나 전편을 통해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하나의 주제안에 관통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바로 인간을 자연인이 되라고 하는 것, 자연화 또는 물화(物化)시키는 것이다. 그 예로 ‘장자’는 자연을 소의 네 발로, 문화를 소의 코뚜레로 비유하여 인간에게 문화라는 것이 소의 코뚜레처럼 불편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 장자가 공자와 다른 점은 바로 그것이다. 공자의 도덕은 인위적인 것이라면 장자의 도덕은 자유로와지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며
세상은
묵어가는 여인숙이다
‘장자’라는 여인숙엔
모든 철인들이 묵고 있다

는 것이다. 공자가 문화를 믿었다면 장자는 자연을 따랐으므로, 공자는 사람을 유용하게 해야한다고 보았고 장자는 사람을 무용하게 해야한다고 보았다. 무용지용(無用之用)이라는 역설적인 개념을 잘 설명하고 이야기가 ‘인간세’편에 나오는 상수리나무와 장석의 이야기이다. 목공인 장석이 엄청나게 큰 상수리나무를 보고, 아무런 소용도 쓸모도 없어서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을 하자 상수리나무가 장석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는 오랫동안 쓸모없기를 배려왔다. 죽을뻔했으나 오늘 자네가 쓸모없

다고 하여 비로소 나는 뜻을 이루어 내 큰 쓸모로 삼게 되었다. 내가 쓸모있었다면 어찌 이리히 크게 될 수 있었겠는가. 너나 내나 다 하찮은 것이다. 서로 하찮은 것들끼리 어찌 서로 하찮다고 헐뜯겠는가” 사람의 편에서 보자면 아무쪼록 쓸모가 없지만 그 쓸모없음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란 상수리나무는 쓸모없음이 바로 쓸모있음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무용(無用)의 용(用)이야말로 만물을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소요유’편에 보면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이 노니는 것, 즉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있으며 스스로 비롯된 것이 자유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다. 막고야산의 신선(神人)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견오에게 연숙은 마음속에도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다고 핀잔한다. 상식적인 인간은 언제나 새로운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변화에 대하여 무서움을 간직한다. 상식을 벗어나서 새로운 눈으로 보고 새로운 귀로 듣는 사람은 언제나 사물의 변화에 무관하며 조작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신선(神人)이며 무한히 자유로워서 아무런 욕심도 없는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유란 자연과 동의어로서 스스로 있는 경지가 아니면 완전한 자유의 경지가 될 수 없다. ‘소요유’의 이야기들은 이렇게 완전한 자유를 누리자면 어떤 사물이 쓸모있느냐 없느냐를 제 중심에 놓고 저울질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그저 사물과 내가 서로 스스로 있지만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자유이고 그 자유가 소요유인

것이다. 결국 앞서 말한 무용의 용어 내 큰 쓸모로 삼게 되었다. 내가 쓸모있었다면 어찌 이리히 크게 될 수 있었겠는가. 너나 내나 다 하찮은 것이다. 서로 하찮은 것들끼리 어찌 서로 하찮다고 헐뜯겠는가” 사람의 편에서 보자면 아무쪼록 쓸모가 없지만 그 쓸모없음때문에 그렇게 크게 자란 상수리나무는 쓸모없음이 바로 쓸모있음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무용(無用)의 용(用)이야말로 만물을 자유롭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장주의 꿈이야기도 위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자’를 읽지 않았어도 한번쯤은 들었을 이야기는 삶이 어찌면 한바탕 꿈인 것이라고 말한다.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다가 깬데, 우리는 그것을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말이다. 나비가

가을짐승의 털이
태산보다 크고,
어려서 죽은 아이가
칠백년 산 팽조보다
오래산 것이라는 논리가
무위자연이다

장주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화, 즐거는 물화에는 상대도 없고 차별도 없으며 무한한 변화를 서로 즐기면 된다. 나비는 장주가 되어 즐기고 장주는 나비가 되어 즐기면 된다. 사람이 위대한 존재이고 나비는 하찮은 벌레라는 성급한 판단을 버리고 그대로 자연으로 이해하고 자연에 동화되는 것이 삶의 길인 것이다. 이렇게 ‘제물’론에서는 사람은 자기 홀로 선택받은 존재이고 온갖 사물이 자기를 위하여 있다는 듯 착각하는 것을 뒤집어 준다. ‘제물’의 의미처럼 있는 것이면 모두다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잊어버리면 그것이 바로 어울려 사는 길이라고 말한다. 자기의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자기를 잊지 못하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주인이 되어 자기를 잊을 일이다.

‘장자’의 이야기는 수없이 많지만, 결국 모든 이야기는 자연스러워지려는 주제로 귀결지어진다. 가을짐승의 털끝이 태산보다 큰 이유도, 어려서 죽은 아이가 칠백년을 살았다는 팽조보다 오래산 것이라는 이유도 무위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짜고 조작한 것일 뿐 자연의 입장에서 본다면 털끝이나 태산이나 다 같으며, 무한한 변전속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의 분별이 없는 것이다. 조작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며, 부단히 변전하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고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것이 무위자연이며, 장자는 우리에게 무위자연이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장자’를 읽고나니 비로소 시야가 열리는 듯 눈앞이 환해진다. 넓은 발판의 광활함을 본듯 ‘가슴이 시원해진다. 세상을 넓게 보는 법, 사물을 거꾸로 보는 법, 뒤집어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 오랜 여행을 끝낸 느낌이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 긴 여행이 시작될 건지도 모른다. 모든 인위적인 구속과 상식에서 벗어나 하염없이 자유롭고 아무런 걸림없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여행, 그 여행의 출발점에서 나는 마치 나비가 된 느낌이다. 장주인지 나비인지 구분할 수 없는 바로 그 나비말이다.

이 선 용

(아간갑과 경제학과)

달 하나 천 경에

세대단절



요즘엔 한 해가 곧 한 세대라는 우스갯말이 실감나게 들리기도 한다. 국민학생에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한 학년 차이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좀 과장이 끼였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후배들과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복학생들을 여럿 만나기도 했다.

무엇이 이토록 급박한 세대간격을 만들어 놓았을까? 스피드만이 요구되는 현대산업사회 때문일까? 아니면 주위 둘러볼 것 없이 앞으로만 달려일등만 하라는 경주마주의적 교육풍토 때문일까? 아무튼 요즘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좁은 의식공간에 갇혀 자폐증의 증세를 보여주는 것 같다.

이들이 그렇게 된 데에는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독자적 삶을 살면서 서로 대화하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 인생을 준비할 기회를 기성세대들은 봉쇄하지 않았던가? 결과로 그들은 구체적인 삶의 경험이 없고, 경험의 결여는 곧 대화의 단절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들은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이러한 일면차 세대단절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것 같다. 사실 이 갈래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이만 줄이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세대단절 곧 기성세대와 신세대 간의 단절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세대차이는 같은 대상이라 문제를 새롭고 발전적인 시각에서 보는 데서 생긴 것이면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세대단절은 무관심 내지 적대감으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어서 대단히 위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서 함께 흘러 하나의 강을 이루어야 할 기성세대와 신세대들이 물과 기름처럼 각자 떠돌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도 기성세대가 먼저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 요즘 우리 집의 가풍은 이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되는가? 부모와 자식 간에 대화를 나누고 경험의 동질성을 누리며 서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집이 또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부모세대는 자업을 지어놓고도 그 결과인 자식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세태만을 개탄하고 있다. 부모세대들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생계에 급급하며 자신들을 희생했다는 것은 참작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 이런 가운데서도 사려깊게 자신들과 다음세대들이 공유할 가치관을 제시했어야 했다.

윤 석 성 인문대 국문과 교수

◇비디오 소개

시민 케인 — 실존인물 생애 바탕으로 어린시절 행복 그려
냉전식 사고 꼬집는 블랙코미디 —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결적으로 인정되는 영화가 상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피되는 상황에서 ‘시네마 데크’는 대가업이 등한시하는 공간을 집중공략하고 좋은 영화 보급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에 내놓은 비디오는 오손 웰즈의 데뷔작 ‘시민 케인’과 스탠리 큐브릭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이 두편이다.

‘시민 케인’은 윌리엄 허스트라는 실존인물의 생애를 비판적으로 묘사했다.

작품은 ‘케인’이라는 당대 최고 언론재벌의 죽음으로 시작되는데, 케

인이 죽으며 남긴 ‘장미꽃 봉오리’라는 말에 의문을 가진 뉴스 영화기자 톨슨이 사건을 추적한다. 케인의 정부 수잔으로부터 알게된 케인의 과거는 화려한 명성과 부의 이면에 질겨 깔린 고독이다. ‘장미꽃 봉오리’는 케인이 어린시절 타고났던 셀매이며, 부모도 살수없는 어린시절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2001: 우주의 오딧세이’로 유명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는 모스크바에 핵공격을 명령해 3차 대전을 유발시키는 광적인 장군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첫장면은 하늘에서 광둥급유를

받던 전투기의 송유구를 남한의 성기와 같이 묘사한다. 주연을 맡은 피터 셀러즈는 소련의 핵위협에 피해망상증세를 보이는 장군, 진보적이지만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수아비 미국대통령, 월처어를 타고 마치 자신의 목을 졸라버릴 것처럼 보이는 기계팔을 가진 악마적인 천재 스트레인지 박사등 1인3역을 소화해낸다.

기계문명에 지배되는 미래사회의 인간관계를 심각하게 해부해 놓은 이영화는 당시 팽배했던 냉전식 사고를 통렬히 꼬집는 사회비판적 주제를 담고있다. (문화부)

심사평

상대적 가치에 대한 이해부족...폭넓은 독서 요구돼

홍기삼

(문과대 국문과 교수)

이번 독후감 심사에서 최우수상에는 ‘장자로부터 얻는 자유’(이부대 경제학과 이선용), 우수상에는 ‘대학 4년, 다가를 사회와의 낯익히기’(국어국문학과 김유정), 가작으로는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전기공학과 김민석), ‘삼국유사를 읽고’(경찰행정학과 신경호), ‘권력이동을 읽고’(정보관리학과 성정아) 등 5편을 수상작으

로 뽑았다.

올해의 독후감은 특정 작품에 편중된 흥미 없지 않지만, 그 내용은 대체로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반가웠다. 특히 주어진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비판하는 능력, 체계적인 구성 등의 향상은 눈물고사의 영광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맞춤법, 띄어쓰기, 원고지 사용방법의 숙지 등에서는 비교적 일정수준을 보이면 서도 문장에서는 비문(非文)이 많았다. 본문에서 많이 발견되는 비문은 한 문장에 많은 내용을

담으려 했기 때문인데 이 경우는 간결한 여러개의 문장으로 처리하면 비교적 바른 문장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른 문장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많은 글을 직접 써보는 일이 첨경임을 학생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우수상을 받은 ‘장자로부터 얻는 자유’는 논리의 전개, 발상, 문제의 해석, 표현력, 언어감각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 주었고, 우수상 수상자인 ‘대학 4년, 다가를 사회와의 낯익히기’는 몇 군데 비문만 없었다면 최우수작과

거를만한 여러가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가령 청소년 갑수성, 언어감각, 미래와 이상에 대한 날카로운 예견 등은 어떤 글보다 청년이 쓴 독후감임을 실감시켜 주고 있다.

끝으로 이번 심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독서경험의 부족과 범위의 협소로 인하여 상대적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 나아가 가치수용의 위험성까지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통해서 폭넓은 독서를 경험하기 바란다.

태평양그룹

50

1945-1995

무한책임주의

태평양패션

LaVora

라보라

나를 아는 화운데이션-렛세스

LET'S

젊음의 화운데이션

나, 렛세스로 탈출한다

자기 것이 아닌 건 벗자

간혀있던 나를 연다

내 것을 찾는다

내 가슴이 열린다

LET'S

Let's be Xes

*'렛세스'는 우리나라 최초로 신세대 2,018명의 체형을 실제 측정 조사하여, 내 몸에 꼭맞은 새로운 화운데이션입니다.

등투 방향전환 단식투쟁

현 시점 선전·요구안 관철 목적

제12대 총학생회(회장 배문석·철4)는 등투방향을 전환, 지난 10일 원효관 중정에서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앙위) 위원들이 무기한 단식투쟁과 함께, 총장실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총학생회는 등투방향을 일리는 한편, 학생들의 등투열기고조를 위해 지난 6일 제2차 등투전진대회를 가졌으나 한의대 1백여명을 비롯 전체 1백50여명의 학생들만이 참가해 등투열기고조에 실패했다.

또한, 지난 6일 오후 3시 학교측 3차장과의 면담을 가진 학생측은 학교측이 화과통합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던 점, 시설투자부분에 정확한 확답을 듣지 못한 점등에 대해, 오후 6시 중앙위를 통해 현 시점에서 등투금형상방향을 재 모색해야한다는 데에 합의했다. 그리고 제8차 협상이 학교측과의 마찰로 무산되자 등투방향전환에 더욱 더 의견이 모아졌다.

이로인해, 학생측은 지난 8일 중앙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현 시점을 알리는 한편, 요구안 관철을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회장 배문석군은 "우리의 입장은 꼭 실행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신입생 2%차등인상분에 대한 정확한 경위와 교육시설확충, 학교·학생 연석회의, 경주부총장권한확대등이 가장 우선 해결되어야할 우리의 최소 요구안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학생측은 어제(11일)오후 3시 부총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 대해 학자투 위원장 정희윤군은 "학교측이 신입생 17% 차등인상부분에 대해서도 현대제 거그러하니 문제가 없다"고 말해 "현재 우리가 제시한 부분의 내용에선 진전된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학생측은 오늘(12일)오전 12시 녹아원에서 제13차 등투전진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전진대회의 경우, 중간고사와 축제기간을 앞두고 있어 등투전진대회의 학생참여도가 앞으로의 등투에 큰 영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제2차 전진대회의 경우 한 대표자가 "단대에서 연락받지 못해 과학생들을 참석시키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중앙위에서 합의된 내용이 각 학과 별로 연계되지 못했음이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총학생회는 1학년 등록금 2%차등인상분에 관련해 내일(13일)오후 5시 옥야실에서 1학년대표자회의를 열 예정이다.

D·C카드 가맹점 구성

제10대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남윤수·국사4)는 오늘(12일) D·C카드 발급에 관련, 각 학과에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D·C카드 가맹점과 할인율은 △한미자동차학원=장학금지급 △한국이동통신=15~30% △대한전산학원=교재 및 디스켓제공 △뉴맥 컴퓨터=3~20% △중앙스포츠=20~70% △정화사인쇄소=특별우대 △프로웬스클럽=15% △혜진미용실=특별우대 △해피버스터미=10% △석천목욕탕=15% △까사=10% △월풀발레방=10~20% △글자방=5~10% △스키나비디오=특별우대 △비어뱅크=10%등 15개 업소이다.

D·C카드발급 시기에 대해 학복위 측은 "제작상의 문제점으로 4번이나 새로 제작하여 발급시기가 늦춰졌다"고 밝히는 한편, "지나해 가맹점이 시내중심이어서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했던 점을 고려, 읍내는 실질적인 선전등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가맹점구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졸업생 취업률 56%

'95학년도 졸업생 취업률이 56%로 최종 집계됐다.

학생과(과장=김용기)는 올해취업률이 지난 2월22일 졸업식을 기준으로 전년도 52.4%보다 4%증가한 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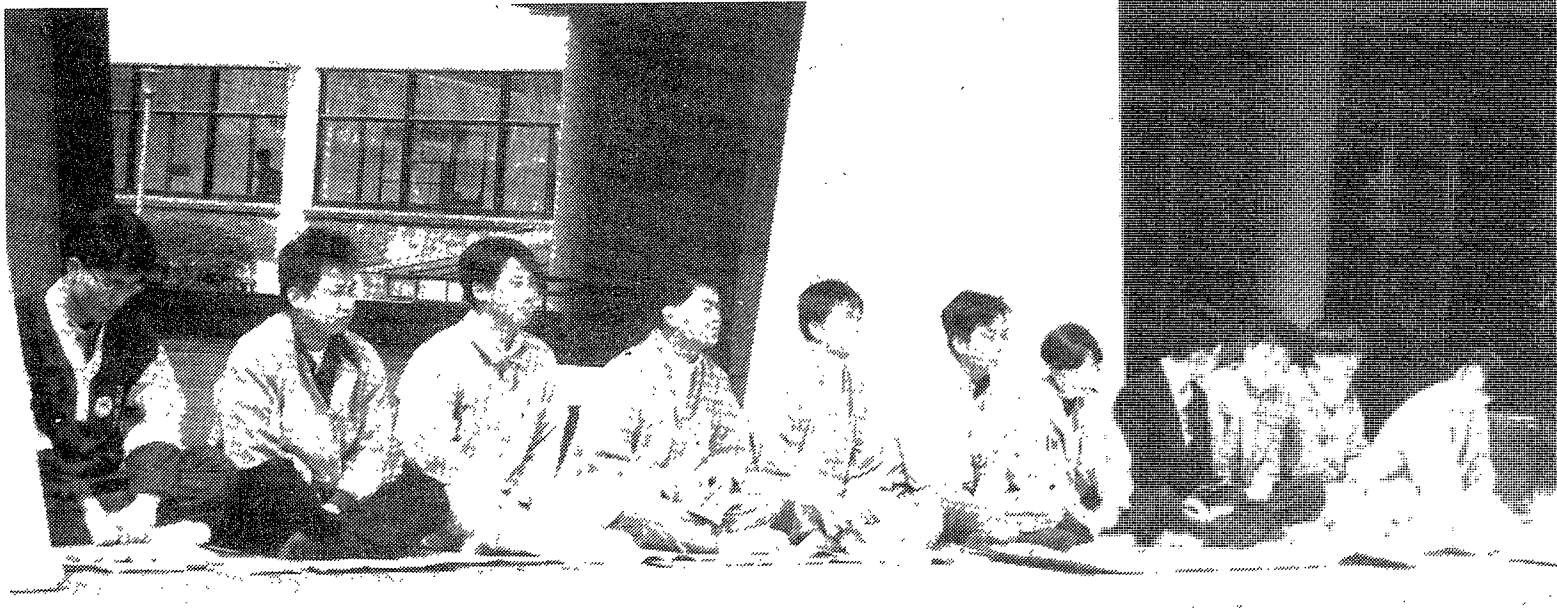
한편 취업특징에는 과별특성을 고려하여 취업현황조사표를 각 과별 배부하여 조사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문대 노래한마당

인문대 학생회(회장=한정원·고미사4)는 '제2회 인문대 노래한마당'을 오는 30일 오후5시 원효관중정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내일(13일) 오전12시까지 원효관중정에서 접수받아, 13일 오후 5시 A207에서 예선을 치른 후 본선참가팀을 선출할 예정이다.

인문대측은 "인문대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므로 인문대 모두 함께 동참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주력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원효관중정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정식...1천원으로 인상

질개선과 분식류 부분인상도 함께

학생회관식당 식비인상이 지난 7일 오후1시 교직원휴게실에서 3차(학교측, 학생측, 업주)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1차 재협상과 동일한 대표들이 참가해 치뤘던 이번 협상에서 업주측은 현실적 물가인상에 맞춰 식비인상을 주장한 반면, 학생측은 질개선을 고려한 식비인상을 주장하여 처음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학복위측이 정식을 물가인상에 맞춰 1천원으로 인상시키고 분식류가격을 동결시키는 1안과 정식을 1천원으로 인상시키나 질개선도 고려하고 분식류를 부분인상시키는 2안을 제시, 업주측이 2안을 선택했다.

이번 조정된 식비가격은 아래와 같다. △정식=9백원 → 1천원 △돈가스=1천원 → 1천1백원 △냉면=8백원 → 8백원 △김밥=5백원 → 5백원 △짜장면=6백원 → 6백원 △수

동=6백원 → 6백원 △쫄면=6백원 → 8백원 △수제비=5백50원 → 5백50원 △만두국밥=7백원 → 7백50원 △국수=4백50원 → 5백원 △곰탕=1천5백원 → 1천5백원 △비빔밥=8백50원 → 9백원 △오징어부추전=6백원 → 6백원등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정식매김시 월요일, 금요일 오전12시부터 오후4시까지 2종류의 밥을 주기로 결정했으며 특식은 없었다.

협상결과에 대해 학복위측은 "지난 협상때보다 결과는 미비하지만 현 시점에서 최선의 합의책이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모니터링도를 꾸준히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오늘(12일) 오후2시 사무처장실에서 사무처장과 총학생회장및 3주체가 참여하여 협상결과를 인준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12대 총대 출범식 및 감사 정기총회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

총대의원회(의장=안대수·경제4) 출범식이 지난 6일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렸다.

이번 출범식은 각단대별 대의원들과 여러 기구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졌다.

또한 출범식과 함께 정기총회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대의원 정족수미달로 무산되고 총회안건의 보고회행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안전보고내용은 △95학년도 1학기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심의 △집행부 일괄 인준권 △등록금 투쟁 경과보고 등이 보고됐다.

한편 총대의원회는 95년도 1/4분기 감사를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각 기구별 학생회 사무실에서 실시한다.

감사시행계획 제11조 1, 2항에 준하는 자료를 내용으로 감사일정은 △19일=의대, 학복위, 불교대, 법경대, 동아리 연합회 △20일=한의대, 자연대, 이부대, 인문대, 상경대 △21일=언론협회의, 교직원집위원회, 졸준위, 여학생회, 총학생회 등이며 21일 등반대회로 인해 감사일정에 다소 변경이 있을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대, 학장실 점거농성

해부학 교실 운영 정상화 촉구

한의대 학생회(회장=이영욱·분2)는 지난 10일 조직해부학교실의 운영을 촉구하며 학장실 점거농성에 들어 갔다.

학생회측은 지난 4일 교수측과 면담을 통해 해부학교실 운영에 필요한 전임강사 1명, 해부기사 1명, 실습기자재(사체포환)와 이제까지 수업결손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교수측은 문서로 확답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학생회는 지난 6일부터 한방병원 현관에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이후 학생회는 단식투쟁을 계속하며 학장실 점거농성으로 이어졌다.

한편, 경영계열 학과평가인정제 준비로 인해 경영학과 학생측과 이견이 생겼던 컴퓨터실은 지난 10~11일 양일간 칸막이 설치작업을 완료했다.

정각원앞수위실 신축공사 범종 설치로 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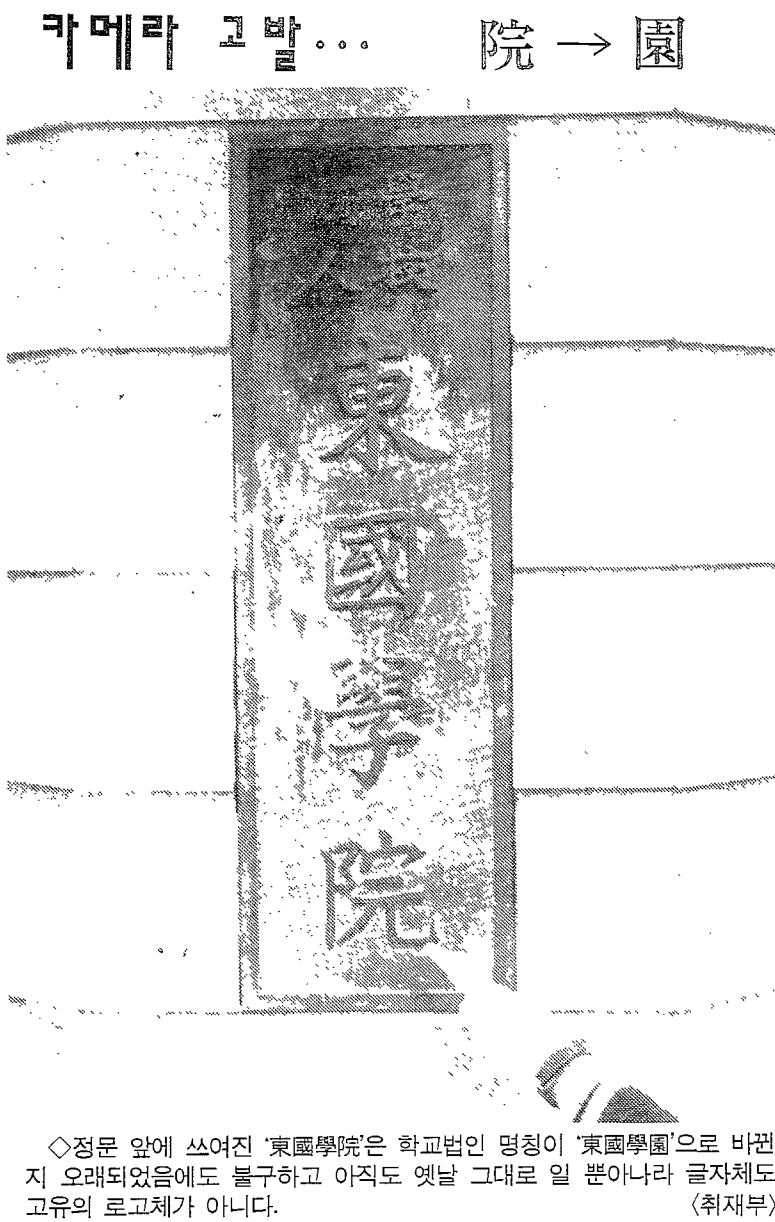
정각원앞 수위실 신축공사가 지난달 6일부터 중단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관재과(과장=이강현)는 당초 오는 5월 20일까지 완공하기로 예정했으나, 지난달 3일 승석구총장이 학생측과의 면담중 정각원앞에 범종을 세우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진행중이던 공사를 중단시킬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경대 학과평가 무기한 연기

상경대(학장=황윤식·회계학) 경영계열 학과평가 인정제를 오는 6월 첫째주에 실시키로 했으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무기한 연기의 이유를 황윤식 학



◇정문 앞에 쓰여진 '東國學院'은 학교법인 명칭이 '東國學園'으로 바뀐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그대로 일 뿐 아니라 글자체도 고유의 로고체가 아니다. (취재부)

신규직원 모집

1.모집부서 및 응모자격	2.모집부서	인원	요 구 자 격
서울	일반직(행정)	약간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과제한 없음)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4.5 만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PERSONAL COMPUTER 사용 가능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선발시 우대)
	기술직(사서)	약간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4.5 만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도서관학 관련 전공자로 정서서자격증 소지자 ·PERSONAL COMPUTER 사용 가능자 (워드프로세서 또는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경주	일반직(행정)	약간명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학과제한 없음) ·전학년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4.5 만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PERSONAL COMPUTER 사용 가능자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선발시 우대)
	기능직(전기기사)	약간명	·고등학교 졸업이상 학력 소지자 ·1965. 5. 1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함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전기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실무경험자 우대

※보통대상자 가산점 부여

2.전형방법
·일반직, 기술직 : 필기시험(영어, 논문)과 면접을 시험 당일 실시
·기능직(전기기사) : 필기시험과 면접을 시험 당일 실시

3.제출서류
가. 지원서(본고 소정양식).....1통
나.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다. 최종학교 경력증명서(대학 포함).....1통
라. 자격증 사본(해당자).....1통
마. 불교도 신명증(본고 소정양식).....1통
(조계종 신자 사본 주지스님 직인 및 개인 인장 날인)
바. 경력·보훈증명서(해당자).....1통

4.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 '95. 4. 12(수) ~ '95. 4. 19(수) 17:00 한

5.시험일시 및 장소: '95. 4. 22(토) 10:00 본고 서울캠퍼스 교사장

6.지원서 교부 및 접수: 서울캠퍼스 총무과 및 경주캠퍼스 총무과
(☎ 02-260-3065~6, 0561-770-2064~5)

※우송권 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동국대학교

건학이념=본교는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민족과 인류사회 및 자연에 이르기까지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게 하여 서로 신뢰하고 공경하는 이상세계의 구현을 건학 이념으로 한다.

전통국인 춘계수계대법회

1. 전계사:오복원 대종사

2. 일 시:2539(1995)년4월 18일(화) 오후 4시

3. 장 소:정각원 대법당

4. 수계접수

1)접수기간:1995년 4월11일~17일

2)접수방법:전화 또는 소정양식에 접수

3)접수장소:정각원 사무실

4)연 락 처:260-3015/6

정 각 원 장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이수신청서접수

'95학년도 사회교육전문요원 이수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아 래

1. 신청자격:'95년 3월현재 2학년 재학생

2. 개설학과:전 학 과

3. 신 청 서:소정양식(각 대학 교학과 비치)

4. 제출기한:'95.4.12(수)~'95.4.18(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교학과에 비치된 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요령을 참고할 것.

사 범 대 학 장

심리검사 및 상담안내

심리검사와 상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 래—

1. 심리검사: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등

2. 상 담:학업, 성격, 대인관계, 유학, 직업 및 진로선택 등

3. 문 의 처:학생생활 연구소 (교수회관 3-1호: 구내전화 3506)

1995. 4.

학 생 생 활 연 구 소 장



◇4·19등반대회가 오는 15일 북한산에서 열린다. 사진은 작년 등반대회 모습.

백상의집 공개경쟁입찰 21일까지 공사…5월15일 개점

북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 (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는 지난 3월30일 있는 운영위원회 의에서 백상의집 위탁운영계약과 공개경쟁입찰 계획을 상정했다.

절차및 일정은 △공사기간=4월 10일부터 4월21일 △입찰공고=4월 7일 △입찰설명회=4월13일 △입찰 등록=4월13일부터 4월15일 오후 1시까지 △입찰심사 및 면접심사=4월17일부터 4월19일 △낙찰자발표=4월20일 오전11시 △사업개점준비=4월21일부터 5월13일 △준비검검=5월11일부터 5월13일 △개점=5월15일이다.

기본제공시설은 입찰자 결정후 공관위핵정예산 범위내에서 협의결정하며 초기 기본 제공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구입 및 사업의 확장 등으로 발생하는 투자는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계약보장기간은 2년이나 운영자의 부주의 등으로 위탁 운영 계약조항을 위반하였을 시에는 증도에 해약할 수 있다. 입찰기

본방침으로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할 계획이지만 공고후 현 업자이외에 응찰자가 없으면 운영위의 재론후에 계약하되 계약기간은 올 12월31일까지로 하고 입찰방법을 재검토한다.

또한 일반입찰절차로 인한 업체선정의 단순성을 배제하기 위해 응찰자와 면접을 실시하는데 심사기준은 대화 문화 및 복지문제에 대한 이해정도과 성실성, 봉사성이다.

입찰심의위원회는 입찰의 심사와 심사기준의 수정 및 조정을 위하여 지난 3월31일 구성했으며 공관위원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본부장, 직원대표1인, 학생대표2인을 위원으로 한다.

입찰설명회는 운영계약의 조건과 방법, 사업의 내용, 사업계획서의 작성제출요령, 낙찰자 선정 기준·방법을 내용으로하여 사업발주를 설명자로 공관위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설학과 공간 문제 누적 야층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 중문학과 등 야간강좌 신설학과 학생들은 학생회장 및 집행부를 중심으로 아침, 점심, 저녁에 중문, 불상암, 동국관 앞에서 공간문제를 포함한 신설학과 문제점을 알리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야간강좌 총학생회장 황인구(영문3)군은 “학교측에선 최소한 신설학과를 위해 가건물이라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는 20일에 있을 교수채용에서 광고학전공 교수를 경영학과에 포함하여 채용한다고 들었다”며 “광고학과와 경영학과를 통합시

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야간강좌 총학생회는 신설학과 문제와 관련된 질의서를 학교측에 보낼 계획이다.

4.19관련 문건 배포 결정

야간강좌 1학년 대표자 회의가 지난 7일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황인구·영문3)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월에 있었던 총학생회 출범식 평가가 있었고 오는 4·19등산대회때 4·19의 의미가 담긴 문건 배포가 결정됐다.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 고양”

4.19기념 등반대회 15일 개최

학생처 (처장=곽준규·교육학)는 4·19기념 제26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북한산에서 개최한다.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학생과 산학부에서 접수중인 이번 등산대회는 4·19를 기념하고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양한다는 취지 아래 등산대회 이외에 4·19 기념식, 장기자랑 및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4인 1조로 구성되는 이번 대회시상은 조구성원, 북장, 협동심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최우수상(1조), 우수상(3조), 자연보호상(2조), 장기자랑상(6조)이 수여되고 참가율이

높은 학과에게 특별상이 주어진다.

한편 총무처 (처장=염준근·통계학)는 참가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학교버스를 수유전철역에서 4·19탑까지 임시운행한다.

버스 시간은 오전 8시10분부터 9시까지이며, 15분간격으로 운행된다.

서남총련 출범식 오는 19일 본교 만해광장

제5기 서남총련 출범식이 오는 19일 본교 만해광장에서 치뤄진다.

출범식은 '국가교육 재장확보 및 교육대개혁을 위한 서남총련 결의

대회'를 시작으로 2부인 여는 마당과 본마당 그리고 3부 실천투쟁으로 이어진다.

여는 마당은 새내기 뽐내기 한마당, 통일 용변대회, 과장 합창제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이루어져 있고 본마당은 새내기 중심의 용립공연을 포함한 제5기 서남총련 각 학교층·부총학생회장 소개, 정치발언, 의장용립, 출범선언문 낭독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출범식 이후 실천투쟁으로 만해광장에서 명동성당까지 촛불행진을 통한 거리선전전 및 정리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행정편의상 총동창회비 고지서 동봉”

학교·총동창회, 대책위 공개질의서 답변서에 밝혀

총동창회비 징상규명 및 문제해결을 위한 4학년 대책위 (위원장=박용규·경제4)가 지난 3일과 4일에 각각 학교측과 총동창회측에 보낸 공개질의서 답변이 지난 10일 대책위측에 전달됐다.

먼저 학교측의 답변을 살펴보면 등록금 고지서와 총동창회비 고지서가 동봉되어 발송된 이유에 대해 “행정상의 편의로 인해 함께 동봉했다”며 “그러나 총동창회비를 등록금 고지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납부는 학생들 스스로에게 맡겼다”고 밝히고 88년 학생총회 결정사항의 일방적 무시에 대해서는 “학생총회의 결정을

학교가 무조건 따른다는 것은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92년 지급동결되어있던 총동창회비 문제와 그 다수 및 운영에 관한 질문에는 “지급동결되어있던 총동창회비는 목역장학회에 그대로 있다”며 목역장학회 사본을 답변서에 첨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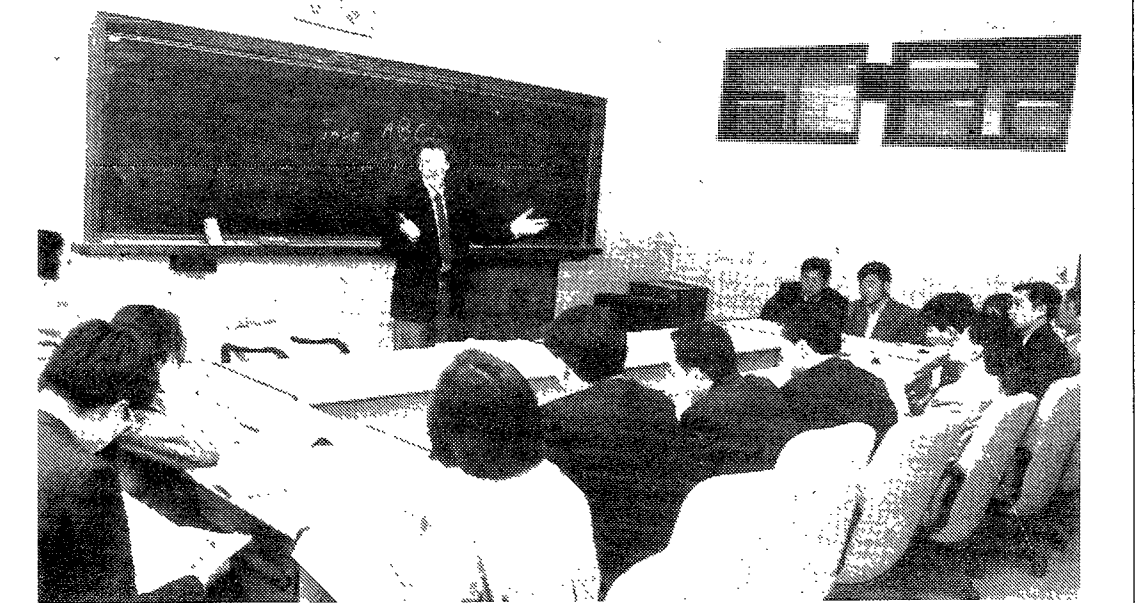
한편 총동창회측은 동봉 발송 이유에 대해 “행정편의상 학교측에 도움을 청했다. 학생들과 사전 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라 밝혔고 동창회비의 사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동우장학회를 통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란 답변과 함께 동우장학회 재단법인

등록서를 제출했다.

또 학교발전 및 재학생들에 대한 계획에 “1백주년 기념 사업추진회와 동국발전 협의를 통해 총동창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특히 총동창회는 ‘동우장학회 10억 모으기 3개년 운동’과 ‘총동창회관 건립 5개년 계획’등의 내용을 담은 장기사업계획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과 총동창회측은 이후 논의의 자리가 있을 때 끼여이 융화겠다는 뜻을 비쳤다.



◇ Good Morning... 직원노조는 지난 3일부터 희망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어회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영어회화교육은 직원들 복지개선의 일환으로 학교의 일정 지원을 받게 돼 직원들의 외국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은혜 기자>

외국어 실습시설 확충

외국어교육원 (원장=김정배·영어영문학)은 외국어 실습시설 확충을 위한 공사를 끝마치고 지난 10일 오전 11시30분 동국관 (M)303에서 오픈식을 가졌다.

새로 실습시설이 설치된 강의실은 모두 5개실로 각 1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다.

식은 송석구총장과 외국어교육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의 교수·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학원 원우한마당

대학원 학생회는 오는20일 출범식 및 원우한마당을 시행한다.

이 행사는 오전10시 만해광장에서 체육대회와 함께 이뤄지며 기획부장 (이성수·사회학과 석사 3학기)은 “참여하는 학생회 건설을 위한 자리매김으로 많이 참석하길 바라며 후원해 주는 만큼 학생회가 힘을 가진다”며 대학원생들에게 당부의 한마디를 했다.

동연 출범식

제11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김용욱·화공) 출범식 및 '95년도 제1차 전체 동아리대표자회의가 오늘 (11일) 오후4시30분에 학생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식전 문화행사로 시작된 출범식은 △출범선언 및 고사 △연대사 △출범선언문 낭독 및 폐회의 순으로 행해졌고 △집행부 인준 △신규 동아리 등록상환 및 준동아리 심사 △정동아리 승격 동아리 확인 △새 11대 동아리연합회 총노선 및 예산안 확정등이 대표자회의의 일반 안건으로 채택됐고, 특별 안건으로는 △회칙 부분 개정 및 심의 △공간 문제가 논의됐다.

졸업앨범 ‘주노’입찰

지난 7일 학생회관 2층 연화원에서 있었던 '96년도 졸업기념 앨범업체 공개 입찰에서 '주노'가 4만8천2백원을 적어 입찰위원의 예상가격 4만8천1백83원도 근소한 차이를 보이며 입찰했다.

한편, 졸업준비위원회측은 앨범분량측정 실수로 인해 앨범가격이 3%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대,재개발지구방문

사회대 학생회 (회장=정심근·사회4)는 급호 1-6 재개발지구를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사회대는 불교대, 법대, 사범대 학생 총 50여명이 모여 급호 1-6 재개발지구를 찾아가 어린이 놀이방,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주민들에게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벌였다.

희전무대

자리 지킴이

○...식당문을 여는 순간 눈 앞에서 팥강가방, 까망가방, 핸드백, 종이가방등 다양하고 화려한 가방들이 줄지어 앉아 '아무도 앉지마!'라고 총알거리는 데.

· 학생들사이에서의 자리 경쟁으로 '밥'보다는 먼저 '자리'를 맡아야지만 마음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유비무환 현상이라고.

이에 자리없는 한 학우 "나도 빠가변적인 큰 가방하나 사야겠는걸"이라고 푸념.

새내기 발마당

○...새내기 한마당이 아니라 새내기 발마당(?)

지난 3일 만해광장에서 열린 '95새내기 한마당이 총학생회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인해 일장이가 1시간 가량 늦게 진행됐다는데.

이로인해 3백여명으로 시작된 한마당은 1백명도 채 안되는 인원으로 끝을 맺었다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한마디 "새내기 한마당도 한총련 출범식 굿아가려나?"

차위를 걷는 여인

○...화장한 봄날에 웬 평을 닮아나라, 진혼관 앞 통일광장 입구에서 문전미숙의 한 학우가 후진 중 뒤쪽에 주차돼 있는 승용차를 들이받아 지나가던 학우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해.

사고 후, 계속 차를 세우지 못해 여러 학우들에게 위험을 안겨줘.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왓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고, 주차장도 미흡한 상황에서 차량만 늘어나니 이러다가 '차위를 걷는 여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혼선+합선=누전

○...본교는 갑작스럽게 경영계열 학과평가 인정제를 준비하던 중, 공간문제가 돌출돼 몇개학과는 논쟁이 붙은 상황까지 진행됐는데.

현재 상황을 알아본즉, 애초부터 평가인정제는 대학교육열외화와 의견조정 문제로 혼선(?)이 빚어져 다시 평가 인정제가 연기 됐다의 것.

이에 한 학우 한마디 "혼선이 합선되어 누전이 돼 버린 모양이죠"

전과안내

학칙 제 26조 및 학사내규 제36조에 의거하여 산업사회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공급하고 적성에 맞는 학과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자연계열학과 학생의 전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대상학과

가. 이과대학:전산통계학과(야), 반도체과학과(야)

나. 공과대학: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산업공학과

다. 자연과학대학:생화학과, 전산통계학과, 전자계산학과

2.대상인원:대상학과 입학정원의 10%이내

3. 시 기:매학년초 (96 3월초)

4. 자격:자연계열학과 1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학기마다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학생으로 총성적 평점평균이 3.5이상 이어야 한다.

(2학년 1학기 등록을 마친자)

5. 기타 전과는 소속 캠퍼스 대상학과에 한하며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 교과과에 문의한다.

교무처장

영어실습 교육보강안내

1.목적

국제화와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대학교육의 국내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인성교육, 외국어교육, 컴퓨터교육강화의 3개 교육과제 중 하나인 영어실습 (Lab)교육 방법을 개선하여 시청각교육을 추가로 실시함으로써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2. 대상 '95학년도 제1학년 전체학생

3. 수업방법

1학년 재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영어실습 (LAB)1시간외에 시청각교육 1시간을 추가로 실시함.

가. 실시시기:'95학년도 1학기 '95년4월17 (월)부터

나. 시 간:1) 월, 수, 금요일 07:30~08:30

(주간학과 재학생:학과별 강의시간 배정표에 따라 실시함)

2) 화, 목요일 07:30~08:30

(야간학과 재학생:학과별 강의시간 배정표에 따라 실시)

3)토요일 15:00~16:00

(야간학과 재학생:희망자에 한함)

5. 성적변영

가. '95학년도 제1학기는 '95.4.17 (월)부터 교육을 실시하며, 시청각교육 2/3이상 출석자는 영어실습 성적평가에 반영함

나. '95학년도 2학기부터 영어실습 수강자는 영어실습 (Lab)외에 시청각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여야 하며, 출석일수 1/3이상 결석자는 학점을 인정하지 않음.

6.교 재 교재명:Listen & View (제 1,2학기 사용가액 7,000원)

교무처장

'95년 예비군 교육시 특별유의사항

1. 입소시간 준수:

08:00시 이후는 절대 입소불가 (어떠한 이유도 해결 안됨)

2. 예비군 복장: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고무링, 허리띠 모두 착용 (단 1가지도 미착용시 절대 입소불가)

3. 교육일정:지정된 교육일자에 참석바람

4.28(금)	5.1(월)	5.2(화)	5.3(수)	5.4(목)
불교대 예술대 경상대	이과대 이부대	공과대 (단 식공 화공, 제외)	문과대 법과대 사범대 공과대 (식공, 화공)	사과대 생명자원과 학대 8개대학원

95. 4. 5일(동대신문)자의 5.21(월)은 5.1(월)일자로 수정함.

4. 기타 강조사항:

가. 주민등록증(학생증)반드시 지참

나. 이동중 안전사고에 유의

다. 잡지, 라디오등 개인용품 휴대금지

라. 지정된 교육일정에 불참사유 발생시

예비군 본부(전화:260-3072~3)로 문의 바람

1995. 4.

동국대학교 예비군 연대장

◇신라인의 문화의식

만파식적, 신라인 음률통치사상 구현의 상징 군사력·법률에 의존하지 않은 높은 문화의식 반영

검아 검아 수로를 내 놓아라.
남의 아낙 앓아간 죄 얼마나 크
나 네 만일 거역하여 내 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 구워 먹으리 '거북
의 노래' 수로부인을 바다의 용왕으
로 하여금 내놓게 한 민중이 부르
던 '중구사금(똥사람이 참소하는 말
은 쇠라도 녹일만큼 무서운 힘이 있
다)'의 노래이다.
현대인들의 정치적 무관심함에
반해 신라인은 중구사금의 의식으
로 살아왔던 것이다. 이런 신라인의
문화파급력을 배우고 알려내고자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경주 문화
원(원장=이성열)에서 경주시 후원,
신라문화동인회(회장=김태중·문화
증 교감) 주최의 문화강좌 '문화재
해설의 밤'을 개최한다.
최근 발표 된 것 중 '신라의 음률
통치 사상'과 '장보고와 원인
(圓仁)'이라는 두 주제로 신라인의
모습을 그려보려 한다.
신라인의 음률 통치 사상
세계의 모든 국가와 민족은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 강력한 군사력·법률
·정보조직·종교 등에 의존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신라인은 또 달리 국가
통치의 이상적 이념을 율령과 사
랑의 절묘한 조화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라인의 높은 문화
의식을 반영한다. 음률과 사랑은 표
리일체로써, 전인완성하며 중생을
제도하고 천제지변과 병난을 다스
리고 또한 금수고충에까지 전달하
는 것으로 알았다.
또한, 이런 신라인의 음률 통치 사
상을 집약적으로 구현한 상징이 바
로 '만파식적'이라고 한다.
만파식적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
면, 산국통일 후 신문왕때 문무왕과
김유신이 죽어서 두마음을 합쳐 신
문왕에게 전하니 "소리로서 천하를
다스려라. 한손으로 치면 소리가 나
지 않고 두손을 마주치면 소리가 나
는 이치이니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
지기도 하는 이상한 대나무를 베어
파리를 만들어 불면 반드시 온 나
라안이 평화로워질 것이라"했다는
것이다.
장보고와 원인(圓仁)
일본인이 국제정세와 대륙문화를
배우고자 당에 파견한 사절, 견당사
를 보내기 위해, 청해진에 거점을
두고 해상권을 장악하던 장보고의
도움은 지대했다고 한다.
장보고는 신라인들이 노예상인에
게 유괴당해 중국에 끌려온 것을
보고 연안주권을 지키기 위해 수비
관의 지위를 요청하여 청해진 대사

로 임명되었다.
중국을 방문한 일본 두번째 천재
중 지도자이자 최후의 견당사인 원
인은 본인이 남긴 제1급의 일기일
뿐 아니라, 중국의 생활양식에 관한
최초의 면밀한 기록, '일당구법행기'
를 남겼다.
원인은 중국연안의 치외법권적
권리를 갖고, 대부분의 배를 움직인
신라인 뿐 아니라 장보고로부터 최
상선원을 건립하고 창원 5백석을
기부 받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고
고 한다.
그리하여 원인은 어려운 처지일
때 원인일행을 원조한 적상법회원과
장보고의 도움을 기려 일본 내
적상서원을 건립하려 했으나 그 뜻
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 그뒤 일
본승려들이 적산선공을 지어 전한
다고 한다.
국경에는 정치의 벽이 있으나 인
정에는 그것을 막는 벽은 없다. 오
로지 원인을 끝까지 도운 것은 신
라인이었으며 불법탄압이 이루어지
던 장안을 탈출하게 한 것은 신라
인 승려이다. 이들의 국경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협력은 과거의 휴머
니즘에 시대를 넘어 공감을 갖게한
다.
(박요선 기자)

영화의 패러독스

‘엄마와 별과 말미잘’ 유현목 감독을 만나

어린시절에 대한 향수－자연회귀 그리고자 “불교진리 담은 영화 만들것”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편수의
영화를 제작한 사람, 고희의 나이로
두달반동안 생활영을 해낸 사람.
이런 지엽적인 사실들로도 세인
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감독, 유
현목(영국영화학) 명예교수를 만나
지난 1일 개봉된 영화 '엄마와 별과
말미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
다.

－ 지난 80년에 발표한 '사람의 아
들' 이후로 작품 발표가 없어 사람
들은 감독이 영화계를 떠난 것이라
추측했었다. 14년만에 다시 영화를
만들게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 그동안 영화를 만들어 보라는
제의를 여러번 들어왔었으나, 마음
에 드는 시나리오가 없었다. 주로
다른 작품들이 무겁고 관념적인 것
이 많아 비흥행감독이라는 낙인이
찍혔었고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싶
었다. 영화진흥공사 시나리오 모집
당선작인 권재우의 작품이 어린 시
절에 대한 향수와 자연회귀 본능을
자극했고, 그래서 작업에 착수했다.
－ '말미잘'이라는 제목에 담긴 뜻
은.

＝ '바다의 아내모네'라 불리는 말
미잘은 해안가에 사는 자동동체 생
물이다. 영화는 소년의 성장을 그리
면서 성(性)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성장영화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기존에 만든 작품들은 주로 사
실주의 영화, 리얼리즘 영화라는 평
을 받았는데, '말미잘'은 어떤가.
＝ 내 영화의 전반기는 '잃어버린
창춘(1957)'·'오발탄(1961)'을 사
실주의 무대로 비판기능을 했었다. 이영
화는 인간의 내적세계, 영혼과 구원문
제들을 다루려고 했다. 광주라는 혼
란한 도시와 자연의 본질을 상징하
는 섬을 배경으로 삼았는데, 소년
수영이 광주에 있다가 섬으로 돌아
가고 싶어하는 모습은 자연회귀를
나타낸다고 할수 있다.

－ 80년대 시대사의 상징인 '광주
민중항쟁'을 그려, 이것은 감독이 침
묵했던 빈 기간을 채운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말미잘'은 바닷가에서 자동동체생물 말미잘을 보며 성에 조금씩 눈을 뜨는 소년의 성장영화이다. 사진은 유현목감독과 영화의 한장면.

＝ 소년 수영이 광주에 있는 고모
네 집을 들렀다가 데모하는 현장을
보고 "뽕깡이가 많구나"라는 말을
한다. 하지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정치적 사안뿐만 아니라 소년이 보
게되는, 말하자면 매춘같은 사회악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
－ 영화는 주로 소년과 자연을 카
메라에 담고 다른 현실들은 지워버
리는 장면이 많고, 흑자는 멜로영화
라는 지적도 하고 있는데.
＝ 소년인 성장을 하면서 성(性)
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을 담고 있
기 때문에, 엄마와 육지에서 온 아
저씨, 선생님과 그의 애인, 동네무당
과 청년 사이의 사랑과 불륜등을
그린 것이며 아이가 이해하기 어려
운 성윤리과죄를 뜻한다. 이런 것들
이 멜로적인 색채로 비칠 수도 있
겠다.
－ 이후에 또 영화를 제작할 뜻이
있는지.
＝ 영화제작이라는 것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
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섬에서 활
영한 것이다. 더욱 힘들었지만, 즐겁
게 해냈고, 자신감이 생겼다. 앞으로
인간의 내면과 영혼을 그리는 작품
이나 불교의 심오한 진리가 담긴
작품을 만들고 싶다.

(이유리 기자)

대학 문화

③ 동국인 신드롬

매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매우 높다. 각종 일간지에서 영화
에 관련된 기사를 찾아 읽거나,
광고를 직접 만들어 발표를 하
기도 하는 것들이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아카데미상 6개부문을 석권할
만큼, 흥행률이 높고 내용에 있어
서도 아이큐 두자리수의 인간성
리라는 감동적인 소재를 담았던,
컴퓨터 그래픽기술로 한층 격을
높였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상
기해보자.

이영화는 베트남전, 워터게이트
사건등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
고 있지만 정박아인 검프의 단순
한 낙관주의를 통해 역사적 사건
을 회화화했다는 비판도 아울러
받고있다.
영화의 예술성이나 감동보다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영화 외적
세계에 나타나고 있다.
검프가 어릴때 그의 어머니가
들려준, "인생이란 초콜릿 상자속

의 초콜릿과도 같다. 많은 초콜릿
중에서 어떤 내용물이 담긴 초콜
릿이 결실될 모드는 것처럼 인생
도 어떻게 펼쳐나갈지 누구도 모
른다"는 이야기. 삶의 목표를 포
기하지 않는한 세상은 꿈을 갖고
살아갈만한 곳이라는 '희망의 메
세지'가 담긴 말이다.
이것이 현재 미국사회에서 검
피즘(Gumpism), 검프마니아, 검
프신드롬등의 신조어까지 만들어
낸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잡
고 있다.
요즘 여기저기에서 "나는 동국
인이더라는 문구의 팻지를 달고
다니는 학생들이 눈에 띈다. 동국
대학교를 상징하는 학교팻지를
달고다니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
이고보면, 우리의 자긍심을 높이
는 우리만의 문화건설 시급성이
필것이다.
초석은 만들어졌다. 이것으로
'동국인 신드롬'을 일으키는 것
은 아닐까. (이유리 기자)

▲로리타라는 소녀가 있었다.

이소녀는 14살이며, 보는 사람들
은 모두 첫눈에 반할만큼 아름답
다. 어느날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
와 사는 로리타의 집에 켈러라는
사람이 찾아왔다가 로리타를 보
고 당장 이집에 세를 든다. 어머
니와 켈러는 결혼을 하지만 켈러
의 관심은 여전히 로리타에게로
쏠려있고, 어머니는 그사실을 모
르다가 켈러의 일기장을 보고 경
악을 금치 못한다. 충격으로 뛰어
나간 어머니는 마침 달려오던 차
에 치어죽고, 켈러는 절로 보기에
엔 아버지 역할에 그나마 실제로
는 연인 역할을 하며 행복해한다.
결말은 비극이다. 영화배우로 만
들어 주겠다는 다른 남자의 꼬임
에 로리타는 도망을 가고 켈러는
수년후에 이남자를 죽이고 만다.
▲이것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소설이다. 70년대 전세계를 풍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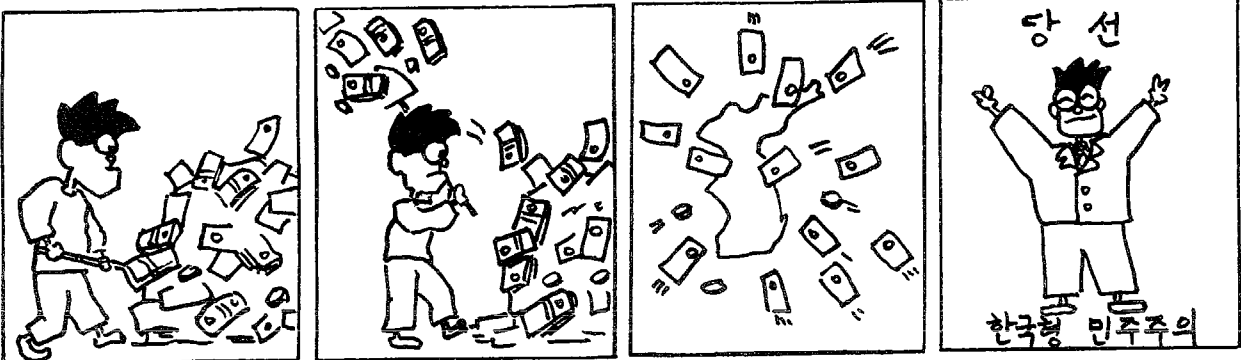
로리타 컴플렉스

한 '로리타'는 꿈 나이트 남자가
어린 소녀를 사랑하는 유행(?)을
만들고야 마는데, 이것이 이른바
'로리타 컴플렉스'다. 불륜과 살인
으로 정죄되는 이현상은 커다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가 잠잠해졌
으나 최근 영화계에서 그바람이
다시 불고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본 영화, 비더오로 꼽히는
'레옹'은 살인 청부업자 레옹과
12살소녀 마틸다가 등장하고, '별
파이어와의 인터뷰'에는 꼬마 벨

파이어 콜로디아의 아버지이자
연인인 브래셔트와 갈등을 하며,
딸을 죽이는 '트윈픽스'와 양친살
해 모티브의 '킬러'가 극장을 장식
하고 있다. ▲잠시 인간의 잠재의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뉴저
지의 한 극장에서 영화 예고편
속에 '코카콜라를 마세요' 팝콘을
먹어요라는 문구를 3천분의 1초
동안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너무
빠른 순간이라 관객들은 알아차
리기도 힘들었지만 팝콘의 판매
량은 60%, 콜라는 16%가 증가했
다. 이처럼 영상으로 침투하는 잠
재의식의 효과는 매우 높다. 재미
로 보고 심심풀이로 여기는 영화
플레이라 해도 인간의 기본적인 윤
리나 도덕의식까지 의심하게할
정도라면 수일을 하는 이나 관찰
을 하는 이나 무의식, 잠재의식을
'의식적'으로 단속해야 할 때가 바
로 지금이 아닌가싶다. (리)



서 승 현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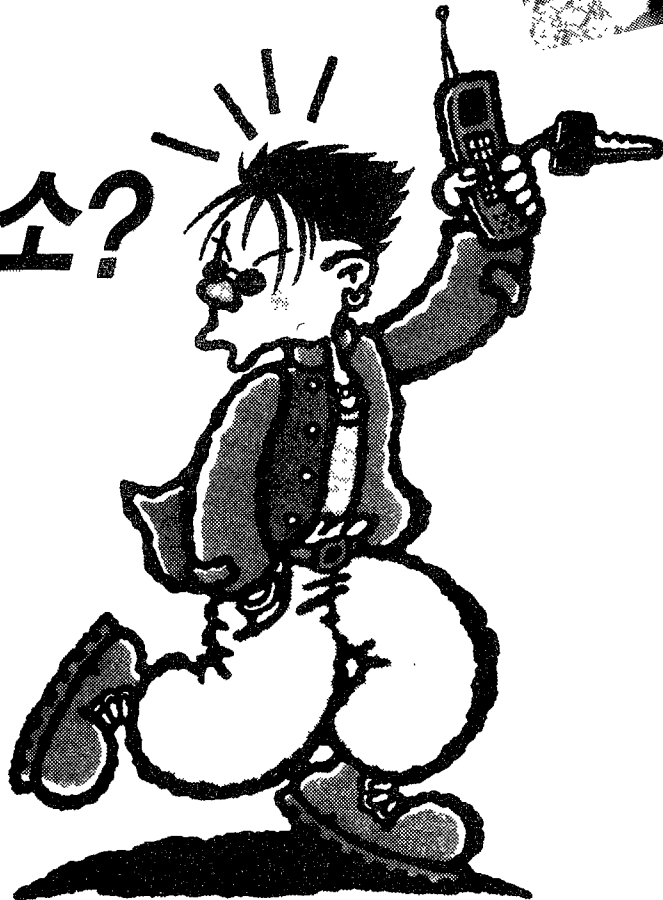


내가 경험한 LG

② 인턴사원 김기환편



반도체 연구소는 오렌지 연구소?



인턴사원이기는 하지만 첫 출근하는 날은 약간의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경직까지는 아니지만 사회인으로서의 나는 어쩔지
어색한 생각만 들었다. 우연동 LG반도체 중앙연구소...
바로 내가 인턴생활을 한 곳이었다.
그 중에서도 나는 U.S 설계실에 배치되었는데
그 곳에 배치된 사람은 인턴사원 13명 중 나 혼자만이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운 얼마되지 않은 나의 어설픈 지식을 갖고
그곳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쑥스러운 일이었다.
이러한 걱정으로 내가 처음 만난 사람은 텅 실장님이었다.
인사와 악수 그리고 몇마디 짧은 대화.
그것으로 나의 모든 우려는 말끔히 씻겨 내려갔다.
어렵고 걱정스러워하는 나의 속내를 마치 다 들여다 보거나 한 것처럼 따뜻하고
격의없이 대해주는 실장님의 모습은 오히려 내가 미안한 감이 들 정도였다.
이후에 알게된 것이지만 그러한 분위기는 내가 인턴사원이어서가 아니라
연구소 전체의 자유로운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분위기는 연구소 사람들의 자유로운 옷차림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출근할때 보면 그들의 옷차림은 오렌지색 뺨칠 정도였다.
꼭 빼입은 정장이 있거나 하면 무에 캐주얼을 차려 입은 사람.
셔츠에 청바지 차림이 보기 좋은 사람 등등 각양각색의 옷차림은 연구소가 아니라
학교에 와 있는 착각을 일으키게 할 정도였다.
그들은 지시와 통제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일이 좋아
정열을 불태우는 뜨거운 젊은이들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젊음들에게 최대한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해주는 문화가
연구소 전체를 움직여 나갔다.
LG의 반도체연구소- 그곳은 진정 살아있는 조직이었다.

김기환 (중앙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 4년)
(LG반도체 '95 동계인턴사원)

